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명숙

2013년 8월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지도교수 이 인 회

김 명 속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김명속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3년 8월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Resilienc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the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in Yanbian Area

Supervised by Professor In-Hoi Lee

Ming-Shu Jin

A thesis submitted for doctorate of education

2013.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김 명 속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이 인 회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적 현대화 건설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의 가치관, 가족구조, 인간관계, 생활양식 등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부모의 해외진출이나 인근 대도시로의 취업, 이혼률 상승,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부재 등 수많은 요인들로 인하여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들은 가치관의 변화, 정체성의 혼동, 심리적 안정과 애정욕구의 결핍, 자존감의 결여, 대인관계의 부적응, 학교부적응, 우울과 불안,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강점과 자원을 개발·활용하여 문제행동이나 갈등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의 관점에 따라 문제행동을 비행, 공격성과 같이 과소 통제된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과잉 통제된 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변지역에 위치한 연길시, 화룡시, 룡정시, 안도현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결손가정 아동 총 484명(조선족 265명, 한족 21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변수들의 기술통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다중집단 분석을 통하여 집단 간 구조방정식모형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내면화 문제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해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크고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행정기관, 상담센터, 지역사회, 학교현장, 가정에서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과 상담교육 실행 시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모 중심, 교사 중심, 친구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가족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교사와 친구지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의 형성과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전체적인 모형을 고려할 때, 사회적지지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환경을 조성한다면 아동의 탄력성은 향상되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감소됨으로써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이르는 경로계수는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계수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사회적지지를 더 많이 지각함으로써 탄력성의 향상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적게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사회적지지의 향상과 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 및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10
1. 결손가정	10
2. 사회적지지	27
3. 탄력성	37
4. 내면화 문제행동	42
5. 외현화 문제행동	50
6.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61
7.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71
III. 연구모형 및 가설	76
1. 연구모형 및 변수	76
2. 연구가설	77
IV. 연구방법	79
1. 연구대상	79
2. 측정도구	80
3. 자료수집 및 절차	83
4. 자료 분석방법	83
V. 연구결과	86
1. 기초자료	86
2. 측정모형 분석	89

3. 구조모형 분석	91
4. 민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01
VI. 논의 및 결론	113
1. 논의	114
2. 결론	127
참고문헌	130
Abstract	154
中文摘要	157
부록 1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일상생활 특징에 관한 설문지	159
부록 2 關於漢族留守兒童日常生活特征問卷	164

표 목차

표 II-1	공격성의 유형구분기준 및 분류	52
표 II-2	비행의 유형구분기준 및 분류	55
표 III-1	연구변수	76
표 IV-1	연구대상	80
표 IV-2	사회적지지 척도	81
표 IV-3	탄력성 척도	81
표 IV-4	내면화 문제행동 척도	82
표 IV-5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	83
표 V-1	관측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86
표 V-2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87
표 V-3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 관측변수의 차이검증	88
표 V-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89
표 V-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91
표 V-6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92
표 V-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93
표 V-8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의 χ^2 차이 값과 자유도 차이 값	95
표 V-9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96
표 V-10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97
표 V-11	최종 구조모형의 다중상관치	97
표 V-12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98
표 V-13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102
표 V-14	최종 구조모형의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	103
표 V-15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104
표 V-16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다중상관치	105
표 V-17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106
표 V-18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106
표 V-19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다중상관치	107
표 V-20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108
표 V-21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비표준화 계수	109
표 V-22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등가제약 분석결과	110

그림 목차

그림 III-1 가설적 연구모형	77
그림 V-1 측정모형	91
그림 V-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94
그림 V-3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99
그림 V-4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110
그림 V-5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11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1990년 초부터 경제적으로는 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적 현대화를 달성하려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의 가치관, 가족구조, 인간관계, 생활양식 등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중 수교 이후 연변 조선족 사회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 가족구조와 여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하나로 대부분 한반도와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연변지역을 기반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민족적 동질성과 한민족의 문화적 전통성을 보존해 오고 있다. 조선족은 고유한 민족문화와 언어를 기반으로 타 민족보다 일찍 해외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변화는 아동발달에 가장 기본적인 행동양식과 가치관 정립, 자아정체감 형성, 심리적 안정과 애정욕구의 결핍, 무기력, 자존감의 결여, 대인관계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그리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들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생활환경마저 파괴하고 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교육국(2011)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연변지역 조선족 결손가정 학생은 18,113명으로 전체 조선족 재학생의 57.83%를 차지하고 있다. 즉 조선족 학교마다 결손가정 학생이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급에는 전체 학급인원 중 결손가정 학생이 90%가 넘는 곳도 있다. 특히, 인력송출로 인한 결손가정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정상적인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아동들은 소심하고, 반항심이 강하며, 충동적이고,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고, 이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다(朴今海, 鄭小新, 2009). 김명숙과 정혜

원, 임원선(2011)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공격성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표현 방식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결손가정 자녀들이 부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함으로 우울, 불안 수준이 높다고 지적하였다(세계일보, 2005. 1. 1). 또한 교사, 교우와의 관계가 긴장되고, 우울증 증세가 심하며 의심이 많고 극단적인 행동표현을 한다는 것이다(박정균, 2008).

한편 연변지역의 양대 민족의 하나로 가장 큰 민족이며, 인구의 59.3%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결손가정은 주로 부모의 이혼이나 국내 타 지역으로의 취업이 주요 원인이다. 이들 결손가정 아동은 전체 한족 아동의 12.39%(연변조선족 자치주 교육국, 2011)로 조선족 아동의 결손가정 비율 및 결손가정 아동이 형성된 이유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김명숙, 2012). 중국 한족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胡湘明, 2009)에서는 학령전(0~5세), 초등학령기(6~11세), 중학교(12~14세), 고령기(15~17세) 등 4개 연령별 아동이 각각 27.05%, 34.85%, 20.84%, 17.26%로 학령기 결손가정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부모의 부재로 안정감이 결여되고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우울, 불안, 공포와 같은 정서문제, 학업부진, 사회성 부족과 통제력 약화로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족 결손가정 아동은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욕구좌절이나 갈등에 봉착하였을 때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가장 높게 호소하였다(李東斌, 溫義媛, 2009; 楊會芹, 張波, 郭雪萍, 李瑗, 石聰欣, 2009; 張守武, 2010).

이와 같이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 친구와의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비행, 공격성 등의 도덕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mato, 1987; Peterson & Zill, 1986). 한국의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 부모 가족이나 이혼가족, 사별가족의 아동과 시설보호아동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이나 재혼의 가족해체는 아동의 성격 및 적응 상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2001). 즉 부모의 부재로 아동들은 안정감이 결여되고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우울, 불안, 공포와 같은 정서문

제, 학업부진, 사회성 부족과 통제력 약화로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비행 등의 문제행동과 같은 부적응을 보인다는 것이다(김명숙, 정혜원, 임원선, 2011; 박경옥, 2006; 李東斌, 溫義媛, 2009; 朴今海, 鄭小新, 2009; 朴婷姬, 2006; 楊會芹 등, 2009; 張守武, 2010).

또한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능력 부족과 상실의 경험이 우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부모 부재를 경험한 아동은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 부모의 사회적 역할 모델 작용 등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성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김명숙, 김성봉, 김도영, 허철수, 2012). 그러나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않고,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문제의 정도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다소 소홀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차윤희, 김영희, 2010). Rie(1971)는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동이 연구 및 지도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승환(2001)은 가족결손은 청소년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적응에 대한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생활할 때 경험하게 되는 생활의 질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와의 결손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구조적 관점에서 결손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다루는 것은 결손관련 경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가족해체와 가족결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결손가정 아동들의 교육적 방치는 비행 청소년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으며,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이르러 심각한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초기 접근을 위한 노력은 심각한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중요하다.

나아가 발달 중에 있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단일 증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다른 문제와 중복되거나 공존하는 경우가 많고(오경자, 1991), 아동기에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 유형으로는 비행, 공격성, 과잉행동,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과 불안이 있다(오경자, 이혜련, 1991). 그러므로 강지현과 오경자(2011)는 우울, 불안 등의 과잉 통제된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비행과 같은 과소 통제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여 부적응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 문제행동의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울과 불안은 영유아 및 아동을 비롯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로, 정도가 심각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면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곽금주, 문은영, 1993; 1995; 문광훈, 2006; 박재연, 2010; 오승환, 2001)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면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순호, 2012; 문대근, 문수백, 2011) 결손가정 아동들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김명숙, 김성봉, 임원선, 2010; 김명숙, 정혜원, 임원선, 2011; 김명숙 등, 2012; 김명숙, 2012)로부터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개입은 직접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은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효율적인 개입방안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은 단순히 가족결손이라는 가족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기능(Turner et al., 1991), 친구, 이웃, 교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Amato & Keith, 1991; Simons & Chao, 1996).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대처기제로 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관점으로 파악되면서(Amato, 1999; Amato & Keith, 1991;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Simons & Chao, 1996), 위험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경감시키거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보호요소로 탄력성과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이 긍정적인 심리사회발달을 이루어 가는 강점과 자원으로 검증되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개인 내적인 특성으로 탄력성이 가족결손, 가족갈등, 스트레스와 같은 역경 상황에서도 개인에게 미치는 위험요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아동들이 변화에 긍정적인 적응을 유지하도록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김명숙, 김종호, 염순정, 2011; 김명숙 등, 2012; 김승경, 강문희, 2005; 김은정, 2007; 김형태, 2011; 서지영, 2002; 천희영, 옥경희, 황혜정, 2008; 한경리, 2009; 현은민, 박혜영, 2005; 陳惠惠, 劉巧蘭, 胡

冰霜, 2011; 李永鑫, 駱鵬程, 譚亞梅, 2008; 李永鑫, 駱鵬程, 聶光輝, 2009; 李志凱, 2009; 王淑芳, 2010). 나아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하게 하는 아동의 보호요소인 탄력성은 정서지능(천희영, 정계숙, 옥경희, 황혜정, 최성학, 2006; 천희영, 옥경희, 황혜정, 2008), 대처기제(오승환, 2001; 이현주, 2011), 내적통제(김명숙, 김성봉, 임원선, 2010; 오승환, 2001), 자아존중감(김명숙, 김성봉, 임원선, 2010; 박옥임, 2006; 오승환, 2001; 이현주, 2011) 등의 변인들을 함축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성격특성이다. 따라서 탄력성은 포괄적으로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개인의 강점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로부터 받는 물리적, 정신적인 지원으로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숙, 김성봉, 임원선, 2010; 김명숙 등, 2012; 김형태, 2011; 김형태, 조순실, 2009; 김혜선, 2004; 민가경, 2003; 민미희, 이순형, 이옥경, 2005; 오승환, 2001; 이현주, 2011; 최영, 2007; 한경리, 2009; 陳惠惠, 劉巧蘭, 胡冰霜, 2011; 段成榮, 周福林, 2005; 李永鑫, 駱鵬程, 聶光輝, 2009; 李志凱, 2009; 王東宇, 王麗芬, 2005; 楊會芹 등, 2009; 楊阿麗, 趙洪朋, 2011). 그리고 아동에게 생태학적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으로 가족, 친구, 교사지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수백(2003)은 인간의 행동은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상호적 관계성에 의하여 표현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일한 환경에서도 발달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설정하면서 결손가정 아동의 강점과 자원을 발굴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아동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개인변인으로 탄력성을, 환경변인으로 사회적지지를 선정하였다. 그

리고 가족의 구조적 결손, 부부갈등 및 이로 인해 형성되는 스트레스는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아동기에 정상가정 아동들보다 쉽게 형성되는 정서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이라고 판단하여 개인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김명숙 등(2012)은 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탄력성은 결손가정 아동들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내거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기에,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개인변인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고(김명숙 등, 2012; 장진아, 신희천, 2006; 한경리, 2009) 가족, 교사,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탄력성이 높으며(장진아, 신희천, 2006), 높은 적응행동의 수준을 나타냈다(정성인, 1998).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환경변인이 된다.

그런데 조선족 아동은 기질 요인 중 공격성, 우울, 불안이 한족 아동에 비해 높은 반면에, 한족 아동은 활동통제와 주의가 조선족 아동에 비해 높았다(박혜원, 박민정, 2005a). 뿐만 아니라 김명숙(2012)은 조선족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비교연구에서도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한족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외현화 문제행동도 조선족 아동이 한족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한족 아동은 조선족 아동보다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선족과 한족 아동의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에 대한 차이 또한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주요한 문제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김명숙 등, 2012; 김형태, 2011; 한경리, 2009)은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과 문제행동에 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지만,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결손가정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개선하

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다른 한계는 선행연구들이 연구방법으로 1차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김경민, 정익중, 2009; 신호진, 노충래, 2007; 이덕희, 2010; 정연옥, 2010; 한준아, 김지현, 2011; 허남순,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하여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명확히 규명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변의 한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국과 동일한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연변의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변인들의 집단 간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비교한다.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결손가정

권영미(1999)는 결손가정을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혹은 따로 살아서 미성년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손가정을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인력수출, 인근 타 지역으로의 취업, 이혼, 사망 혹은 별거 등으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살고 있지 못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

나.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Dubow와 Ullman(1989)은 사회적 관계망에 부모, 형제자매, 교사, 또래 등을 사회적 지지원의 하위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지지로 정의하고, Dubow와 Ullman(1989)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하였다.

다. 탄력성

탄력성은 동일한 위기 상황일지라도 이에 더 잘 적응하게 하는 내적 특성과 능력으로, 이해리와 조한익(2006)은 전인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들을 포괄하여 긍정적 적응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을 아동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내거나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고, 이해리와 조한익(2006)의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라. 내면화 문제행동

Achenbach(1991)는 아동기의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

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상태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고, 심후섭(1989)과 최진숙, 조수철(1990)의 우울과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마. 외현화 문제행동

Achenbach(1991)는 아동기의 비행, 공격성 등과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외재화되고 과소통제된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행동의 충동 조절이 어려워 타인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관찰가능한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고, 김준호 등(1990)의 비행과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결손가정

가. 결손가정의 개념

결손가정이란 부모가 모두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는 가정을 뜻하며, 이혼, 사별,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편부, 편모,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또한 결손가정은 넓은 의미로 보면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정뿐만 아니라 가족성원 간의 애정이 결여된 빈껍데기 가족의 성격을 드러내는 심리적 결손가족까지 포함한다(조홍식 외, 1999).

한국의 결손가정은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오미경, 이수희, 2010), 이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가 가족구조에 작용하면서 가족체계의 위기를 가져왔다. 나아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 및 기능이 변화되면서, 가족 및 친척의 유대가 약화되었고, 질병이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부모의 사망과 이혼 등이 결손가정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오승환, 2000). 특히 IMF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변동으로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사고, 별거, 이혼, 맞벌이, 수감, 파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결손가정이 증가하였다(박옥임, 2006).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결손가정이 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원인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사고사, 이혼증가, 경제파탄 등이 결손가정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정옥, 2005). 이와 같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그리고 가치와 규범의 변화에 의하여 결손가정을 형성하는 원인 중, 사별이 1995년 70.6%에서 2005년에는 48.1%로 감소한 반면에, 이혼은 1995년 29.4%에서 2005년에는 51.9%로 증가하였다(한국 통계청, 2010).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00)의 제5차 전국 인구조사에서 14세 미만의 결손

가정 아동이 2000만 명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결손가정 아동들을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나라의 안정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경제개혁, 대외개방,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農民工) 대도시로 진출하면서 결손가정 아동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은 땅이 넓고, 지리적,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지역 간의 경제발전이 불균형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많은 농촌의 잉여노동력들은 생존을 위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중 많은 부부들은 함께 도시로 진출하였지만 호적제도, 교육제도, 경제수준 및 직종 등에 따라 자녀를 고향에 남겨두게 되자 따로 보호자를 위탁하거나 부모 중 한쪽이 남아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

一張(1994)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결손가정 아동을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해외 유학 혹은 취업으로 국내에 남겨져 있는 아동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는 결손가정 아동을 부모 일방 혹은 쌍방이 국내 타 지역에서 취업하거나 상업 활동 혹은 기타 활동으로 장기간 조부모, 친척 혹은 대리인들이 생활을 돌보는 미성년을 결손가정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李永鑫, 駱鵬程, 譚亞梅, 2008).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2007년 이전까지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결손가정 자녀, 결손가정 아이, 결손가정 학생, 결손가정 소년, 농촌 결손가정 자녀, 빈 등지 아동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2007년 이후 점차 결손가정 아동으로 통일되었다(朱俊卿, 2009). 이런 맥락에서 朱俊卿(2009)은 결손가정이란 부모의 일방 혹은 양쪽이 이주(移居) 노동으로 인해 아동이 고향에서 부모의 일방 혹은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가정을 결손가정(留守家庭)이라고 하고, 이런 가정의 미성년 아동을 결손가정 아동이라 정의하였다. 반면에 부모의 이혼으로 형성된 결손가정 아동은 한 부모 가정(單親家庭) 아동이라 정의하였다(張守武, 2010).

이상으로 결손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을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인력수출, 인근 타 지역으로의 취업, 이혼, 사망 혹은 별거 등으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살고 있지 못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

나.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이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손가정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이론적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Amato와 Keith(1991)는 청소년의 삶에 가족의 결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론으로 가족상실 이론, 가족갈등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Amato(1993)는 부모상실 이론, 부모갈등 이론, 가족스트레스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Hetherington과 Stanley-Hagen(1999)은 기존의 가족상실 이론 이외에 탄력성 이론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이 가정해체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근거하여(Burnette, 1998) 결손가정 환경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들 중에서 가족상실 이론, 가족갈등 이론, 가족스트레스 이론, 탄력성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이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논한 후에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가족상실 이론

가족상실 이론은 가족의 결손이라는 구조적 특징에 의해 결손가정에서 가정구성원들이 적응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족상실 이론에 의하면, 가정이 아동의 양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부와 모로 이루어진 정상가정이 편부모 가정보다 아동의 발달에 더 좋은 환경이며 부나 모의 결손은 가정 전체 뿐 아니라 아동에게 지속적인 생활의 긴장과 심리적인 부적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가족이 아동의 양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부와 모로 이루어진 정상가정이 결손가정보다 아동의 발달에 더 좋은 환경이며, 부나 모의 결손은 가족 전체와 아동에게 지속적인 생활의 긴장, 그리고 심리적인 부적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신분석이론과 역할이론에 기초한 결손가정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동성 부모의 존재는 자녀가 적절한 성관련 행동을 학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있다(Edwards, 1987). Lamb(1977)는 5세 이전에 아버지가 없는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게 되는 남아는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여성적이거나 복종적이거나 의존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이 되거나 도덕성 발달에 장애를 가져와 비행이나 범죄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모성을 상실한 아동은 대인관계, 사회성, 자율성, 독립성이 낮고, 사회적 자극에 대해 형식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육체적, 지적인 발달의 지연, 심리적 갈등, 우울, 불안 현상, 타인을 동일시하는 능력상실을 초래함으로써 아동의 부적응 및 갈등상태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되었다(전재일, 조운희, 1990).

둘째, 역할이론적 접근은 가족원, 특히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역할의 공백상태가 결혼가정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하며, 아동의 발달에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 것으로 규명되어 왔다면(Phares, 1992), 아버지는 독립성과 경쟁을 격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brera et al., 2000). 즉 부양자나 남편으로서의 역할 혹은 부인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결혼가족은 역할구조상의 변화를 가져와 가족성원 간의 심리적·정서적 관계와 역할구조의 재조정 및 적응과정에서 긴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아동복지편람, 1997).

이런 맥락에서 가족상실 이론은 가족의 구성을 부모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정상가족으로 파악함으로써 가족의 결손을 경험한 자녀의 다양한 적응 양상과 긍정적 적응을 보이는 자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가족갈등 이론

심각한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켜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하고 갈등적인 경험을 하는 청소년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Conger et al., 1992). 따라서 가정의 해체를 경험한 아동들의 부적응 문제를 가족구조가 아닌 부모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족갈등 관점이다.

Amato(2001)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추적한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해주는 것은 부모의 부재보다는 갈등

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갈등이 자녀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모갈등은 자녀들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떨어뜨리고(Emery & O'Leary, 1984), 부모갈등에 노출될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다. Amato와 Keith(1991)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보다 갈등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사회적응과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결손가정 아동은 사별로 인한 결손가정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받는다(김정옥, 2005). 특히 이혼가정 아동은 정상가정 아동에 비해 우울, 정서적 갈등으로 인한 불안, 자기 비난과 같은 심리정서 문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반사회적 행동문제, 그리고 대인관계나 학업수행에서 더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교사들이 평가하였다(성정현, 송다영, 한정원, 2003).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청소년기에는 10대 임신, 학교중퇴, 약물남용과 같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되었다(Amato, 1993).

이러한 연구결과로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족 유형이 아니라 가족갈등과의 관계로 인해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손이라는 가족구조보다 보호자들과의 관계가 결손가정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보고 결손가정 아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3) 가족스트레스 이론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가장 고전적 이론모델은 스트레스 상황발생의 인과모델로서 위기상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Hill(1949, 1965)의 '가족스트레스와 대처모델 ABCX'모델이다. 이 모델은 사건(A), 사건에 대처하는 가족자원(B), 사건에 대한 가족인식(C), 위기수준 또는 위기발생여부(X)의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 또는 위기발생여부(X)는 A, B, C 세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가족의 대처능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McCubbin과 Ptterson(1983)은 Hill의 이론을 계승하여 Double ABCX모델을 제

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예방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자원과 인식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대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가족자원과 대처기제는 가족이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예견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김안자, 2005에서 재인용).

대처기제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위기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의미한다. 대처기제는 문제해결적 대처기제와 정서적 대처기제로 구분되는데, 문제해결적 대처기제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정서적 대처기제는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고, 자아와 상황의 긍정적 측면만 선별하여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한경리, 2009).

이런 맥락에서 Lazarus와 Folkman(1984; 김안자, 2005에서 재인용)은 스트레스-대처 과정에서 문제해결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을 제시하였는데 개인적 자원으로 신체적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해결 기술 및 사회적 기술을 포함하고, 환경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와 물질적 자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김성이(1992)의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청소년이 정상가정 청소년에 비해 객관적이고 문제지향적 대처기제를 적게 사용하고, 과거지향적 대처기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현숙(1993)은 자녀들이 이혼이라는 위기적 사건에 대처하는 문제해결 방식을 알아본 결과, 스스로 해결, 친척·가족의 지지, 종교적 지지, 친구의 지지 등 다양한 대처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사용할수록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정의 해체라는 위기를 겪은 결손가정 아동들이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원으로 대처기제와 환경적 자원으로 가족, 친구, 교사와 같은 지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결손가정 아동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4) 탄력성 이론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요소를 탐색하던 연구자들은 위험에 처한 아동들은 그들 중 약 1/3 정도만이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2/3의 아동들은 주요한 발달적인 붕괴 없이 위험 경험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rby & Fraser, 1997). 이러한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보호요소로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탄력성이란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유능하게 대처함으로써 상황을 극복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Garnezy(1985)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개인특성, 가족응집력, 유용한 외부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양옥경과 최명민(2001)은 탄력성을 역경으로부터 더 강해지고 개인의 강점과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위기와 도전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성장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높은 탄력성을 가진 아동은 현실적인 통제감이 있고 자긍심이 높고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높아서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에서 높은 능력을 보이고 있다(Cowen, 1990). Werner(1994)도 탄력적인 아동은 적극성과 계획성,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 그리고 자아효능감과 같은 강점들이 문제해결에서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높은 탄력성을 가진 아동은 특정한 스트레스를 수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역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나아가 아동은 자신들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한다(Hernandez, 1993).

이처럼 Rutter(1990)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위험요소나 보호요소가 아동에 미치는 그 자체의 영향력보다 이들 간의 과정이나 매개개념의 이해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두 변인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손으로 아동들이 가지게 되는 가족상실, 가족갈등, 스트레스 등을 위험요소로 보고, 탄력성과 사회적지지를 보호요소로 보고 결손가정 아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5) 통합적 관점

지금까지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이론적 관점들은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하나의 요소로만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가족상실 이론에서 결손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부모의 부재 즉 가족상실을 경험하여 정상가정의 아동에 비해 적응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가족갈등 이론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족 유형이 아니라 가족갈등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스트레스 이론은 가족구성원 사이에 함께 겪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자원과 대처기제에 의해 가족구성원의 적응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발달 중에 있는 결손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처기제와 결손가정 아동이 가질 수 있는 자원으로 탄력성과 사회적지지를 활용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손가정 아동들이 가족상실, 가족갈등 및 가족스트레스 등 위험요소로 우울, 불안,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지만, 탄력성과 사회적지지와 같은 보호요소를 적용하여 문제행동을 경감시키거나 발생을 억제시켜 건강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탄력성과 사회적지지를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결손가정 아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특성

1) 문제행동의 개념

문제행동이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드러난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정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심리적인 행위까지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이다(장연심,

2003). 홍경자(1986)는 문제행동을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각종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나 장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임인섭(2012)은 문제행동을 청소년이 행하는 반사회적 행동과 심리적인 부적응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이 사회생활 중에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된 방식으로 손상을 주는 행동 전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행동은 사회문화적 규범에 따라 규정(Kauffman, 1993)되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와 행동의 부적응 결과로 볼 수 있다(한미현, 1996).

문제행동에 대하여 1950년대 초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50년대 이후에는 Freud의 심리학적 영향을 받아 주로 정서장애라는 용어가 쓰여 오다가 1960년대 후기에는 문제행동이라는 용어가 강조되었다(장연심, 2003).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흔히 문제행동을 행동장애, 행동역기능, 심리문제, 손상, 결함, 이상행동, 정신장애, 정신병리, 부적응 행동, 발달장애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정명숙, 손영숙, 정현희, 2004).

문제행동의 유형은 보는 관점과 규정에 따라 종류 및 범위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분류체계로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정신장애 분류체계(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IV: DSM-IV)와 Achenbach(1991)의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 분류가 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정신장애 분류체계(DSM-IV)는 주로 정신내면의 주관성에 따른 임상 관찰에 의존하는 임상적 접근이다. DSM-IV에서 명시한 유아기, 아동기 또는 사춘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는 정신장애, 학습장애, 운동기술 장애, 의사소통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품행장애, 반항장애, 섭식 장애, 틱 장애, 배변장애, 분리불안 장애, 선택적 함구증, 애착 장애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청소년 또는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진단에는 물질관련 장애,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 장애, 해리성 장애, 성 정체감 장애, 섭식장애, 수면 장애 등이 있다. 그러나 장애를 하나의 구분되는 집단으로 묶는 범주로 보기보다 임상적 수준과 비임상적 수준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는 차원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좋다는 관점과 아동과 청소년은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공존하기에 장애들을 서로 구분되는 범주적 용어로 개념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대안적 관점이 제기되었다(정명숙, 손영숙, 정현희,

2004).

정신병리에서 부적응을 논의할 때 크게 범주적 접근과 차원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특정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진단하고 분류하는 범주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체계이다. 이러한 접근은 실무율적인 분류의 성질 때문에 관련 증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와 달리 차원적 접근에서는 정상과 병리사이에 연속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특정 장애와 일치하는 증상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 수준별로 개인을 평가하게 된다. 차원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증상을 이해할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발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진단 기준이 발달 단계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증상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가 Achenbach와 McConaughy(1997)가 중다변인적 통계적 접근을 통해 개발한 아동행동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명명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문제증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점을 지니게 되어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특정 문제행동이 아닌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축을 통해 문제행동들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chenbach(1991)는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내면화 문제를 우울, 불안, 위축, 신체증상, 주의집중문제 등의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으로 정의하고, 외현화 문제를 비행, 공격행동 등과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외재화되고 과소통제된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과잉 통제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불안(우울), 사회적 위축, 미성숙한 행동이나 신체증상을 하위요인으로 하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과소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나타나는 공격성과 비행을 하위요인으로 한다(오경자, 홍강의, 이해련, 하은혜, 2001; Achenbach, 1991).

이처럼 경험적 접근에서 개인들 간의 차이는 질적이라기보다 양적이며, 정상과 병리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보다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추출된 체계에 대한 신뢰도 연구는 문제행동 점수가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

었다(Achenbach, 1991). 오경자와 이혜련(1991)도 문제행동을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변인으로 공격성, 비행, 신체증상, 과잉행동, 정신분열증, 우울·불안, 사회적 위축, 사회적 미성숙, 성문제 등 9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타당도를 연구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유안진과 한미현(1995)은 한국 아동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과잉행동, 불안,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회적 미성숙이라고 지적하였다.

1980년 초, 중국에서 처음으로 4~16세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Achenbach의 儿童行爲量表(CBCL)척도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였으며, 지금은 상해(上海)와 다른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있다. 그리고 Connors의 儿童行爲問卷은 주로 아동의 ADHD를 감별하는 간이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Rutter의 儿童行爲問卷은 1988년 중국에 유입되어 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신질환을 감별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余强基 등(2001)이 번안한 개방식으로 “초등학생 문제행동”과 “중학생 문제행동”, 崔麗霞 등(2005)이 번안한 신뢰도가 높은 “중학생 문제행동” 자기평가척도가 있다(廖艷華, 2007에서 재인용).

문제행동에 따른 성차에 관한 연구를 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우울, 위축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고(한경리, 2009),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이나 위축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도 있으며(조복희, 이진숙, 한세영, 2005), 내면화 문제행동(김문정, 정문자, 2004)과 외현화 문제행동(조복희, 이진숙, 한세영, 2005)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처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성차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명숙과 손영숙, 정현희(2004)는 어떤 문화에서나 행동의 기준은 성별에 따라 정해지며,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이고 지배적이고 활동적이고 모험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여자는 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조용하고 민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성 고정관념은 정상적 판단에 지침 역할을 하며, 사람들은 지나치게 민감하고 수줍음을 타는 소녀와 지나치게 지배적인 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의 성이 거꾸로 된 경우에 비해 걱정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김민정과 도현심(2001)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남아에게 용감하고 남자다운 행동을 칭찬하고 공격성을 허용하는 것은 남아가 친구들과

이나 그 밖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공격성의 강화를 더 접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 행동이 성 고정관념과 불일치 시에는 부모의 과잉반응적 훈육과 관련되고, 성 고정관념과 일치 시에는 부모의 방임 훈육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김현정, 2001). 이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 유형이 다른 것은 성에 따른 사회적 기대와 사회화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임인섭(2012)의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빈곤, 부모갈등, 부모의 사회적지지, 부모 우울 및 음주, 부모의 양육태도 등 가족환경에서 비롯된 요인과 기질,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정서인식 등 개인적으로 내재된 취약성으로 인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는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감소된다(김도훈, 문유신, 2001). 또한 우울, 불안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은 오랫동안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격성과 비행으로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초기 청소년시기에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기에(홍성도, 이주영, 김지혜, 2003)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구분하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문제행동이란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된 방식으로 손상을 주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만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행위를 포함한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특성

서명석(2009)은 동양전통에서 견고하게 지탱해 온 자녀양육의 엄부자모(嚴父慈母)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아이들과 건강한 소통의 가능성과 양육의 틀을 제공해 준다고 지적하였다. 즉 아동은 아버지의 권위와 위엄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용서를 배운다. 이렇게 엄부와 자모는 의미망에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는 상징망이 되어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형성시킨다. 그러나 결손가정 아동은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

의 스승인 부와 모의 결핍으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손가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찍이 서구에서 시작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어 왔다 (McLanahan & Booth, 1989). 초창기에는 결손가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점차 아버지의 부재나 이혼이 결손가정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Amato, 1987). 1980년대에는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Conger et al., 1992; Simons & Chao, 1996)를 통해,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단순히 가족결손이라는 가족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기능(Turner et al., 1991), 친구, 이웃, 교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Amato & Keith, 1991; Simons & Chao, 1996). 또한 19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가족결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Henderson, et al., 1996; Simons & Chao, 1996). 특히 위험에 처한 아동들의 약 1/3 정도만이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나머지 2/3의 아동들은 주요한 발달적인 붕괴 없이 위험 경험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Kirby & Fraser, 1997),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결손가정 아동들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과 탄력성 및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적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Amato, 1999; Amato & Keith, 1991;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Simons & Chao, 1996).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아동 간의 성격 특성연구에서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의 아동보다 안정성, 사회성과 사려성에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부가 결손인 경우 아동은 지배성과 사회성, 그리고 안정성과 사려성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이순영, 1998). 제명숙(1985)은 결손가정의 남아가 정상가정의 남아보다 매우 내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대상의 상실, 심리적 결여감,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 대한 자신감 결여라고 지적하였다. 여아도 남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향적인 특성을 보였으나 정상가정의 여아보다 사회적 요구에 대해 매우 순응적으로 나왔다. 이는 모두 부모의 결여로 인한 성격 형성이 미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손상태가

부 혹은 모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서도 그 영향이 다르다.

결손가정 아동은 결손이유로 볼 때 아버지를 사별한 경우에 가장의 역할 공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김정옥, 2005), 부가 사망한 가족의 자녀는 위축, 퇴행행동을 많이 보이고, 이혼한 가족의 자녀는 공격적, 일탈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Kiston & Morgan, 1990). 또한 오은순(1997)의 이혼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저학년 아동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대처기술의 부족으로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별거하게 된 부모에 대해 심각한 허탈감을 느낀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혼 상황에서의 대처기술을 소유하고 가정 밖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잘 이용하여 정상가정의 아동보다 더 조숙하고 성적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 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사회적, 인지적으로 미숙한 놀이와 충동적이고 반항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남아에게서 의존적이고 우울, 불안하고 학습능력 저하와 같은 문제행동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혼 후 2년경까지 지속되나 4~5년이 지나면 대부분 편부모 가정에 익숙해지며, 일부 아동은 6년 정도가 지나면 안정된 감정 상태가 된다(Hetherington, 1989; 천희영 등, 2006에서 재인용).

또한 어경림(2001)은 정상가정 아동보다 결손가정 아동들이 개인자신 스스로 외모, 건강, 자신감, 학업 등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박성옥과 신귀순, 박정옥(2003)은 이러한 결손가정 환경에 의해 아동이 지니게 되는 열등감으로 인해 자기에 대해 부정적이고 정서불안,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윤혜미(1997)는 결손가정 아동일수록 정상가정 아동에 비교하여 열등의식, 긴장, 갈등에 사로잡혀 성격이 날카로워지며 항상 불만이 가득하다고 보고하였다.

라춘봉(2004)은 인력송출로 인한 조선족 결손가정 부모들이 자녀와의 정서적인 교류 부족을 물질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의 결과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더욱 삭막해지고, 아동들의 인생관이 모호하며, 과소비와 낭비를 일삼을 뿐 아니라 불건전한 도덕관념과 인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장기간의 부모결손으로 결손가정 아동은 정상가정 아동보다 학

습정서, 고독정서, 대인관계능력, 자책경향, 과민반응, 생리증상, 공포증상, 충동억제능력 등에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비율이 정상가정 아동에 비해 4배 높다고 하였다(박정희, 류혜순, 2004). 金明淑(2004)의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우울, 불안, 공격성, 비행, 신체증상을 더 많이 표출하고, 자아의식, 대인관계가 긴장하고 인지에서 극단적인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청소년 범죄율도 더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동인구(流動人口)의 증가와 아울러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사회 각 부분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2002년 이후부터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李永鑫, 駱鵬程, 譚亞梅, 2008). 중국 한족 결손가정 아동에 관한 다수의 연구(胡湘明, 2009; 李東斌, 溫義媛, 2009; 王敬峰, 2010; 張守武, 2010; 楊會芹 등, 2009)에서도 결손가정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우울, 불안, 불량한 행위습관, 비행, 신체화, 공포, 충동성, 공격성, 적대적, 범죄, 학업부진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차가운 아동들은 따뜻한 감정에 목마르고, 성격이 소심하며 괴팍하며 반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관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결손가정 아동은 주로 조부모와 친척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데 그 중 조부모가 78.4%를 차지하고, 친척이 13.9%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조부모들은 문화정도와 지식수준이 낮아 단지 아동의 생활만 보살필 뿐 학업과 심리발달에 무관심한 양육행동을 보여(李東斌, 溫義媛, 2009), 결손가정 아동의 중학교 입학률은 88%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미성년 범죄사건 중 결손가정 아동이 60%를 차지하였다(中國寧波網, 2011).

그러나 중국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문제행동에 따른 불안, 사회적지지, 성별과 연령 등의 변인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이 일치하지 않고 문화배경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이며, 사용한 설문지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나아가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많은 개입방안과 제언들이 이론적이라 실천하기 힘든 한계를 드러냈다(朱俊卿, 2009). 그러므로 결손가정 아동의 지역, 연령, 사회문화배경의 일치 및 신뢰도

와 타당성이 높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개입방안과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변지역에서 조선족과 한족은 주요 양대 민족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시기에 인구의 60%를 차지하던 조선족은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의 변화로 해외인력송출, 인근 대도시로 진출하는 새로운 붐의 형성 및 저출산으로 인해 지금은 인구의 37.7%를 차지하고 있어 조선족의 위치가 뿌리를 흔들릴 만큼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족의식의 갈등, 가치관의 변화, 정체성의 혼동, 이혼, 별거 및 인력수출 증가로 인한 결손가정 발생 그리고 이로 인한 자녀의 교육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낳고 있다. 나아가 “한국붐”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증폭시켜 그들의 내면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학교부적응 문제는 물론, 자기 통제력의 결여로 인한 비행, 공격성과 같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있다. 박경옥(2006)은 최근 몇 년간 연변지역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전체 청소년 범죄율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조선족 아동과 가족에 대한 연구들(박성연, 김미경, 도현심, 2000; 이시라, 박혜원, 2005a; 윤갑정, 2007; 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주연, 2005)을 살펴보면, 조선족의 급속한 사회변화가 아동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복희, 이주연, 2005). 나아가 한국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보호자와의 별거사유,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평균수입 등이었다면,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동거인 변인과 보호자의 양육행동 등으로 차이가 나타났다(천희영 등, 2006). 특히 결손가정 보호자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조복희, 이주연, 2005; 천희영 등, 2006)에서 조선족 보호자들은 한국 보호자들보다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양육행동이 낮고 양육효능감과 긍정적 양육행동은 높았는데 이는 두 문화집단 간 양육환경이나 양육에 대한 양육자의 태도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조복희와 이주연(2005)의 연구에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긍정적인 적응양상은 한국이나 서구 다른 나라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부터의 예

측과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그들은 조선족 사회에서 부모의 외국 인력수출로 인해 형성된 부모별거의 현상이 아동들에게는 특수한 경험이 아닐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선족 사회는 한국이나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가정이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친척이 대리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회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조선족 아동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를 학습하고(정확실, 조연순, 이성은, 1992), 교과서의 내용이 학교, 집단, 정부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혜원과 원영미, 이귀옥(2003)은 조선족 아동은 개인을 강조하는 한국의 아동과는 달리 교육과 철학의 차이로 인해 소속한 집단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는 문화권에서 자라므로, 내적통제성이 한국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조선족 아동의 내적통제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한국의 아동과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조복희, 이진숙, 한세영, 2005). 그러나 조선족 양육자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제공을 최선의 부모역할과 책임감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부모들 간의 경쟁을 자극하여 더 많은 교육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겨 자녀와의 장기간의 별거를 감수하고 해외로 출국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자칫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에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들어,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 행동, 신체증상,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연변지역 청소년들이 심각한 심리적 고민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이나 신경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났고(박옥희, 2004), 가족의 결손형태에 따라 가족기능은 특별한 차이를 보였다(류향란, 2006). 나아가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우울은 정상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으며(문광훈, 2006), 결손가정 청소년의 불안, 고독경향, 자책경향, 신체증상도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周岩岩, 200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결손가정 아동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갈등, 이로 인해 형성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

며, 따라서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표출한다고 판단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손가정과 아동 개개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연변지역 결손가정에 대한 학위논문은 주로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처치차원에서 정서와 행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등 일부에 한정되었을 뿐,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변인들 간의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의 개인적 성격특성으로 탄력성과 환경적 특성인 사회적지지와 문제행동에 관한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적다. 따라서 모방성이 강하고 외부세계에 대해 관심을 넓혀나가는 아동기의 문제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강점과 긍정적인 자원을 개발하여 적절한 조기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공격성, 비행과 같은 학교생활 중에 아동이 보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강지훈, 박성연, 2005), 현상학적으로도 내면화 문제행동보다 쉽게 관찰 가능하며, 더욱이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정미, 황혜원, 2006). 그래서 발달 중에 있는 아동은 단일한 문제증상보다는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문제행동을 연구하는 것이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아동이 결손가정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위기와 역경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보호요소로서의 사회적지지와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런 연구를 통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하고 건강하게 적응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적지지

가. 사회적지지의 개념

사회적지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혜경, 2007).

Cobb(1976)는 사회적지지를 정서적 지지, 존경지지, 관계망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개인으로 하여금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믿음과 동시에 의사전달과 상호의무의 망 조직에 들어 있음을 믿도록 하는 정보를 사회적지지라고 정의하여, 사회적지지의 기능과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였다. Kahn과 Antonucci(1980)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지지로 정의하였다.

Pinneau(1986)는 사회적지지를 내용에 따라 구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여기서 구체적 지지는 돈이나 물건의 지원과 같이 문제해결의 도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고, 평가적 지지는 문제해결방법을 설명해주는 것과 같이 개인의 지식체계에 공헌하는 심리적 형태의 도움이며, 정서적 지지는 존중을 표현하거나 열심히 들어주는 것과 같이 사회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화형태의 도움을 의미한다.

Caplan(1974)의 정의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지지 개념으로,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는 정서적 제어력을 증진시키고, 지침을 제공하며, 정체감과 수행에 관한 환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위기 시에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돕고, 과업을 분담해 주며, 나아가 금전, 물질, 도구, 기술 및 인식적 지도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람의 예방적 개입 및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의 개념에 사회적 지지망과 지지형태, 지지욕구까지 포함시켜 지지적 행위의 속성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

고, 정보적 지지는 직업의 기회 제공, 정보 제공 등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전달을 의미하고,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肖水源(1999)은 사회적지지를 객관적 지지, 주관적 지지, 지지 이용도 등 3개 하위요인을 구성요소로 사용하였으며, 辛自強, 池麗萍, 耿柳娜(2007)는 Vaux가 번안한 청소년 사회적지지 척도를 중국 청소년에게 맞게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였다.

이상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원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권석만(2005)은 사회적 지지의 원천은 배우자, 친한 친구, 가족, 동료, 교사라고 하였으며, Garmezy(1993)는 가족, 교사, 이웃, 친구의 부모, 기관이나 교회라고 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을 이루는 지지원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망에 부모, 형제자매, 교사, 또래 등을 사회적 지지원의 하위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Dubow, Ullman, 1989).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원은 가족, 친구(또래), 교사 등이 있다(민가경, 2003; 심승원, 2001; 주소희, 2002; 한경리, 2009).

둘째, 사회적지지의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Pinneue(1986)는 사회적지지를 내용에 따라 구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으며 Mcloyd(1990)은 사회적지지를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를 정서적 지지(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의 행위), 정보적 지지(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물질적 지지(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 평가적 지지(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분류하였고, 肖水源(1999)은 객관적 지지, 주관적 지지, 지지 이용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원을 사회적지지의 개념으로 구성하고, 결손가정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을 알아보기 위기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였다.

나. 사회적지지의 관련변인

1)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관심, 인정 또는 도움 등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이혜경, 2007).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는 터전이며, 기본적인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며, 가족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망이다. 특히 따뜻하고 수용적인 가정환경을 구성해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들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겪는 불안 유발적 경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김문정과 정문자(2004)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무관심과 결손가정, 그리고 그릇된 양육행동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우며 부모와 학교 교사지지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경아, 1997). 이런 맥락에서 가족지지는 위탁아동의 공격성, 비행, 불안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허남순, 2004). 민하영과 유안진(1996)은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아동의 심리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동은 조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사회적지지를 경험할 수 있으며, 가족지지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경(2004)은 학령기 아동의 탄력성 발달에 부모의 지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확대가족이나 가족성원은 아동발달에 물리적·심리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며(박현선, 1998), 스트레스적인 사건에 대해 도와주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불안을 경감시킨다(Mena 등, 1987; 박현선, 1998에서 재인용). 따라서 탄력적인 아동의 상대적인 취약성과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능력은 상당부분 환경의 지지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가족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Ford, 1992; 박현선, 1998에서 재인용).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이 적고,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모든 사회적 관계형성과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기초가 되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개방적일 때, 사회적 관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문제행동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아동의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난다(김애경, 2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손가정 아동들이 가족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결속력은 아동의 가족지지 인식을 더 높여줄 수 있다(이진아, 2007). 그러나 결손가정 아동은 가정 내에서 사회적지지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외적 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정보다 친척, 친구 지지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환, 2001).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의 영향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결손가정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자녀의 행동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때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친구지지

사회는 아동이 최초로 나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이며,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지지를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한경리, 2009).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동들은 점차 가족 이외의 성인들이나 또래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넓혀 나간다. 이때 아동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사회적 비교 기능을 가지는 집단이 친구이다(김선진, 2005). 특히 아동후기는 친구가 매우 중요한 타인으로 부각되는 시기로 또래집단에 소속되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며,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보냄으로써 친구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부상하게 되며(김애경, 2001), 또래관계로부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이혜경(2007)은 친구지지는 또래와 친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인 자원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급증하고 긴밀해지면서 친구관계로 발전해 가며,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 적응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며 친구와의 사이에서 비슷한 문제와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홍복희, 2001).

김선희(2000)는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또래와 친구관계와 관련이 있는바,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아동은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며,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친구와 갈등을 많이 겪는 아동은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 지각, 외로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과 신체적 건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심승원, 2001). 즉 사회적지지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생활사건을 차단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게 된다. 예컨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지속적인 상태, 소속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친구의 부족,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상의할 사람의 부재, 경제적 궁핍,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의 부족 등과 같은 상태가 우울증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석만, 2005).

조선족 아동들은 교사지지와 친구지지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를 보여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와 도움을 많이 받는다. 즉 조선족 아동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조복희, 이진숙, 한세영, 2005).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학교적응 간의 구조분석에서 청소년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아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개념이 미완성시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애착,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에게 어머니와의 애착이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와의 애착은 아동에게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이시라 박혜원, 2005b; 2005c).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이 중요한 변인이며,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조선족 결

손가정 아동들은 장기간 어머니와의 별거로 인해 또래관계와 학교적응 간에 더 많은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최영(2007)의 연구에서 위탁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가족지지와 친구 지지가 나타났고,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친구지지가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은 학교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잘 극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중 교사지나 가족지보다 또래지지가 아동의 부적응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김명숙, 1994; 한미현, 199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은 친구지지를 통하여 사회적 기술과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친구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친구집단에 대한 소속욕구와 인정욕구를 충족하며, 친구로부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는다. 그러므로 아동은 학습과 생활에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잘 극복한다면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교사지지

교사지지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 도움이나 관심, 인정 또는 자신감, 성취감 등의 자원으로 정의된다(이혜경, 2007). 아동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정환경 외에 학교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가족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친구와 교사의 영향력은 증가한다(김경연, 1987).

이런 맥락에서 교사는 아동에게 지적 성숙 및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에게 있어서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서 아동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 사회관 등을 형성하게 된다(김선진, 2005; 홍복희, 2001). 따라서 아동에게 가장 긍정적인 역할모델로 신뢰 있는 인물은 교사이며, 교사지지와 관심은 아동의 내적 지향의 동기와 학업성취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Werner & Smith, 1992). 박현순(1998)은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에서 민주적 학교분위기나 교사지지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교사지지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조복희, 이진숙, 한세영, 2005; 한미현, 1996),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 아동의 내적 통제성, 가정의 물리적 환경, 교사지지 순으로 나타났다(조복희, 이진숙, 한세영, 2005). 특히 조선족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에서 교사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고, 아동이 학교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사와 부모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복희 등(2005)에 의하면, 조선족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과 교사와의 관계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며 결손가정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과 한국 화교 아동의 두 집단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 아동은 한국 화교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과 교사지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함으로써 중국 조선족 아동이 한국 화교 아동보다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복희, 이주연, 2006).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교사지지는 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 기술, 가치, 태도와 사회관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며, 나아가 아동의 내적동기와 학업성취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지지는 아동들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신장시켜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변인이다. 특히 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부모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손가정 아동들은 교사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은 문제행동을 감소하거나 완충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다. 사회적지지의 연구동향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지지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Maslow는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에서 욕구계층의 셋째 단계에 소속감, 관심, 사랑, 인정, 용납, 이해, 도움 등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설정하고 있

다. 이러한 소속감의 욕구와 자기만족의 욕구를 사회적 욕구라고 하며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조언, 지도, 칭찬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Ell, 1984).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삶을 지탱하도록 돕는 심리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지지는 친밀감, 인정과 애정, 소속감, 돌봄과 보살핌, 정보제공, 물질적 도움과 지원 등을 통해 자존감과 안정감을 유지시켜 주는 사회적 자원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적지지의 원천은 배우자, 친한 친구, 가족, 동료, 교사 등이다(권석만, 2005).

사회적지지는 객관적인 사회적지지와 지각된 사회적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객관적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대인관계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을 의미하고,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Cohen과 Syme(1985)는 개인이 받는 사회적지지보다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문제대처의 효능성, 적응적 결과 및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는 1970년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등장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핵심변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초기 연구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초점을 둔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인간관계의 양적 특성보다는 질적 특성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해, 사회적 지원의 기능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 방향이 전환되었다(Jacobson, 1986). 최근에 와서 사회적지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예방과 대처과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등 개인의 적응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장미향, 2003).

Cohen과 Wills(1985)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잠재적인 영향으로부터 사회적지지가 개인을 보호한다는 ‘스트레스 완충 모델’과 개인이 가진 스트레스 수준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지지가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효과 모델’로 분류하였다. 즉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적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적응

양상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지지가 완충작용을 하여 사회적지지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유의하게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위기에 처한 개인의 기능과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해 개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의 유해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건강한 행동을 조장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중재 또는 완화시킨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로부터 물리적,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기의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적응 및 안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한미현, 1996). 조복희와 이진숙, 한세영(2005)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조선족 아동은 한국의 아동과 달리 또래보다는 가족이나 교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족 아동의 교사지지와 또래지지 지각 점수 분포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은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아동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 문화권에서 성장하여 내적통제 신념이 높고 사회적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족 아동들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지지와 임파워먼트(김수정, 2008; 이혜경, 2007), 탄력성(강희경, 2006;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정지영, 임정하, 2011; 陳惠惠, 劉巧蘭, 胡冰霜, 2011; 李永鑫, 駱鵬程, 聶光輝, 2009),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김은경, 2000; 문승태, 김민배, 2005), 내면화 문제행동(고은정, 1997; 민미희, 이순형, 이옥경, 2005), 스트레스(정성인, 1998; 홍복희, 2001; Cohen & Wills, 1985) 등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있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 및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와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

을 보고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명숙, 1994; 김명숙 등, 2012; 김은경, 2000; 김형태, 2011; 김형태, 조순실, 2009; 박정희, 박정미, 2010; 장연정, 2002; 최영, 2007; 한미현, 1996; Cohen & Syme, 1985; 楊阿麗, 趙洪朋, 2011).

3. 탄력성

가. 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을 의미한다. 흔히 연구자에 따라 “탄력성”, “적응유연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적응유연성은 단순히 적응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복귀하는 능력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탄력성”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잘 적응하게 하는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Block와 Block(1980)은 탄력성을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개념이라고 규정하였다. Walsh(1998)은 탄력성이란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자 위기나 도전에 반응하여 이를 감당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며 성장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고민숙(2002)은 탄력성을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 조절능력과 인지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선영(2008)은 탄력성을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긍정적이고 친근한 대인관계 능력의 발현으로 지지관계를 형성하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개인의 역동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탄력성을 긍정적인 적응요소로 역경 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긴장 인내 수준과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강희경(2006)은 탄력성을 개인이 가진 잠재적인 중요한 자원으로, 개인이 성장·발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관점에서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보호요소라고 하였다. 나아가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탄력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안정된 성격, 높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로 학교나 사회활동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또래관계에서도 적절하고 공감적인 정서표현 능력을 보였으며 인지적으로도 유능하고 영리하다는 것이다(Block & Kremen, 1996).

이상의 개념을 정의하면, 탄력성은 역경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개인의 긴장 인내수준과 충동통제를 유연성 있게 조절하고, 상황적 요구에 알맞게 문제해결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자기보호기제이다. 그러므로 아동은 역경을 통해 더 많은 강점과 자원을 보유하게 되고,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내거나 어려운 환경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적응과 관련된 탄력성 요인은 이해리와 조한익(2006)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적 요인을 포함하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탄력성의 여러 요인들이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나. 탄력성의 관련변인

초기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탄력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탄력성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선영, 2008). CCQ(California Child Q-Set) 탄력성 척도 문항을 분석한 Block과 Block(1980)은 탄력적인 아이의 행동 특징을 첫째,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다양한 문제해결력을 가진 융통성 있는 통합된 수행, 둘째, 덜 불안하고 덜 의심하는 성격의 안정성, 셋째, 자기 확신과 자기 수용에서 나오는 자신감, 넷째, 학교사회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융통성 있는 적응, 다섯째, 적절한 자기표현을 통한 건강한 또래관계, 여섯째, 유능하고 유창한 인지능력이라고 제시했다.

Q'Connell-Higgins(1983)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탄력성을 가진 아동들은 첫째,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고 둘째,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셋째, 유아 때부터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이 있으며 넷째,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Block과 Kremen(1996)은 탄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으로 첫째, 친구들을 향한 관대함 둘째, 감정통제 능력 셋째, 새롭고 특이한 상황에 대한 호기심 넷째, 활력성 다섯째, 행동하기 전의 신중함 여섯째, 강한 성격을 의미하였다. Klohnen(1996)은 탄력성의 요소를 자신감 있는 낙관성, 자율성, 생산적인 활동,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온정, 기술적 표현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은희(1996)는 Q'Connell-Higgins(1983)와 Block과 Kremen(1996)의 탄력성 요소 중 공통점으로 첫째,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으로 대인관계 둘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능력을 말하는 활력성 셋째,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감정통제 능력 넷째, 새로움을 추구하는 호기심 다섯째, 삶의 의미를 긍정적인 신념으로 유지하는 낙관성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지연(2000)은 한국아동 인성검사와 탄력성 척도의 타당성 연구에서 외국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첫째, 또래관계 및 자신감 둘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셋째, 쾌활함을 포함하는 자기수용 및 낙천성 넷째, 가족 화목을 표현하는 가족관계 요인을 탄력성의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주소희와 이양희(2007)는 자기효능감, 부정적 감정의 인내,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 자발성을 탄력성의 구성요소라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탄력성의 구성요소는 학자들마다 표현 언어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의미가 비슷하고 중복된 개념이 많다.

또한 탄력성을 성격적 특질이나 발달과정 혹은 결과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繆勝龍, 2012), 탄력성은 개체의 잠재적인 능력 또는 성격특성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적응 결과라고 볼 수 있다(邱婷, 譚文, 2012). 주소희와 이양희(2011)는 탄력성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청소년 탄력성을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 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해리와 조한익(2006)은 전인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개인 내적 특성

들과 외적 보호요인들을 포괄하여 긍정적 적응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안정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감정과 충동 조절, 공감과 수용, 낙관주의, 목표와 희망,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 등의 8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李永鑫와 駱鵬程, 譚亞梅(2008)는 Block & Krema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중국 결손가정 아동에 맞는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李海壘와 張文新, 張金寶(2008)는 교사관심, 친척관심, 민주가정, 사회능력, 자기관찰, 학교와 사회활동에 적극참여, 또래의 높은 기대, 또래친밀감, 문제해결과 자기효능감, 가정의 높은 기대, 목표와 희망 등으로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탄력성 요인으로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인 이해리와 조한익(2006)이 연구한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 탄력성의 연구동향

1970년 이후 많은 학자들은 위험상태에 빠지기 쉬운 아동의 유연성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원영, 이태영, 강정원, 2008)로부터 탄력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Rutter(1985)는 이처럼 환경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놀랍게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어린이들을 발견하고 탄력성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즉 탄력성을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며,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자기행동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탄력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정의되어져 왔으나 크게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의 두 가지 이론적 바탕에서 설명되고 있다. Garmezy(1993)는 탄력성을 아주 심각한 상태나 만성적 스트레스 혹은 그에 뒤따르는 연장된 혹은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한편 Walsh(1998)은 탄력성을 생활상의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한 채 있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으며 성공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여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적극

적인 과정이라며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의 경우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달리 탄력성을 정상적 발달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발달상의 적응과정이나 현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급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과학 연구를 계속해 왔다(Coie, et al., 1993; 박민지, 유미숙,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예방과학의 개념 중 하나로 도입된 개념이 바로 탄력성이다. 탄력성의 정의는 연구자들 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를 잘 극복하고 현실에 적응해가는 능력이 뛰어나며, 발달적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미래에 대한 도전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허선윤, 2010).

席居哲, 桑標, 左志宏(2011)은 아동의 대인관계와 인지도식에 관한 연구에서 탄력성이 낮은 아동보다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조화롭고 우호적이며 여유 있는 긍정적인 특성이 적대적이고 긴장한 소극적인 특성보다 많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탄력성이 낮은 아동보다 대인관계 유형에 대한 판단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도움의 필요시 정확한 판단을 통해 대인관계의 지지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음으로, 위험이나 역경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적인 아동은 새로운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충동을 잘 조절하는 등의 행동 특징을 보이며(Block & Block, 1980), 탄력적인 사람은 비탄력적인 사람에 비해 불안과 우울에 덜 취약할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보인다(고은정, 1997). 부모 이혼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령전기의 아동에 비해 학령기 아동이 문제행동을 더 보이고(정현숙, 1993; 김승경, 2004), 이혼에 의한 부모와의 별거 경과시간은 아동의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별거기간이 길수록 아동이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고 있다(천희영, 옥경희, 황혜정, 2008). 뿐만 아니라 아동의 탄력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아의 탄력성이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가 조기발달을 통해 유리한 것과 관

런된다(이완정, 2001; 이용준, 박경자, 2005).

또한 현은민과 박혜영(2005)의 연구에서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잘 헤쳐 나가며, 계속적으로 타인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탄력성은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성이 낮은 아동들은 더 많은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고(Block & Block, 1980),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비행행동을 보이며(White, et al., 1994; 서보업, 2011에서 재인용) 다양한 환경적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Block & Block, 1980).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위기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적응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 아동과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이지연, 2000; 이해리, 조한익, 2006; 주소희, 이양희, 2007; 2011), 탄력성과 가족기능(강희경, 2005), 갈등해결전략(정미현, 2003; 席居哲, 桑標, 左志宏, 2011), 스트레스(김안자, 2005), 우울(고은정, 1997), 유능감(김지현, 2010), 임파워먼트(김수정, 2008), 학업성취도(박은희, 1996), 사회적지지(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李志凱, 2009) 등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있다. 특히 탄력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김명숙 등, 2012; 김민정, 2005; 김은정, 2007; 김현순, 2005; 김형태, 2011; 송미령, 2006; 이예승, 2004; 천희영, 옥경희, 황혜정, 2008; 현은민, 박혜영, 2005; Block & Block, 1980; 姚小燕, 2012)가 주를 이루었으며, 적응 향상을 위한 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김미향, 2006; 이선영, 2008; 허선윤, 2010)에 관한 연구도 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 간의 경로와 인과관계 구조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김명숙 등, 2012; 김승경, 강문희, 2005, 박민지, 유미숙, 2011; 박재연, 2010).

4. 내면화 문제행동

가. 내면화 문제행동의 개념

내면화 문제는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문제로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 Achenbach(1991)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불안, 우울, 위축, 신체증상 등으로 기술하였다. 즉 내면화 문제행동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화된 문제 행동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나치게 통제되는 성격 장애로 명명되었다. 내면화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말은바 책임을 스스로 완수하고, 타인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보여 질 수 있지만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과정의 현상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쉽게 위축되고, 강박관념 등으로 자기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며, 극심한 불안이나 우울로 인하여 만족스런 인간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숙하여 아동의 인격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정신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울과 불안은 아동의 정상발달을 어렵게 한다(허선윤, 2010).

김미선(2006)의 연구에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아동이 내면화 문제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부자가정의 아동이 다른 형태의 가정 아동에 비해 내면화 문제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모성역할의 결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성역할 분담에 의해 가사노동, 아동양육, 정서적 역할 등을 전담하던 모가 존재하지 않는 부자가정의 경우 생계부양자로서의 전통적 가장 역할만을 수행하던 부가 모의 역할(심리정서적 가족기능)을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모자가정과 양부모가정은 상대적으로 가정의 심리적 기능이 원활하여 아동의 적응수준이 높은 반면, 부자가정의 경우 가정 내 정서적 역할을 담당했던 모의 상실로 인해 가족 역할구조의 재조정 및 적응과정에서 긴장이 생긴다(이영주, 1999). 그러므로 이러한 긴장이 가족성원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복종을 강요하고, 엄격하며, 일방적인 힘에 의한 규율을 요구하고 규칙이나 역할에 있어 경직되어 가족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송명자, 1995). 이는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사한 오승환(2001)의 연구에서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청소년이 심리정서 문제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면화 문제행동은 극심한 불안이나 우울을 동반하고 만족스러운 인간

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숙하여 아동의 인격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정신적인 결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상태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며, 심후섭(1989)과 최진숙, 조수철(1990)이 번안한 우울과 불안 척도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나. 내면화 문제행동의 관련변인

1) 불안

불안은 주관적 느낌(불편함, 공포, 두려움), 명백한 행동(회피, 위축), 그리고 생리적 반응(발한, 메스꺼움, 떨림, 일반적 각성)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증상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 증상의 더 흔한 발현 방식에는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 증상과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 강박사고나 행동, 생리적 각성, 신체적 신호에 대한 과잉 민감성,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공포 또는 불안,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도한 걱정이 있다(이승연, 신현숙, 이동형, 2011).

김혜진(2006)에 의하면, 불안은 뚜렷한 원인이 없이 느끼는 근심, 걱정, 두려움 등의 감정이며, 기본적인 심리 상태로서의 불안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성취 활동 및 결과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불안한 아동의 경우, 자기주장이 약하며 수줍어하고 평소 긴장된 모습으로 이완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불안은 긴장, 염려, 걱정 등 주관적인 감정인면서 자율신경체계의 자극으로 형성되어지는 유쾌하지 않은 유동적인 정서 상태나 조건으로 스트레스에 대해 위협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하게 된다. Freud는 초기에는 불안을 부적절하게 해소된 성적충동과 해소되지 못한 흥분으로 생긴 긴장 상태가 변화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후기에는 자아의 기능으로 불안을 설명했다. 또한 Alder는 불안을 대인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열등감과 열등의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불안이란 유아가 자신에게 중요

한 애착대상과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손현규, 2003에서 재인용). 나아가 불안은 그 수준이 적당할 때는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지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적응능력을 감소시켜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불안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우울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우울과 불안이 모두 자신에 대한 통제감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울은 통제감을 가지고 있으나 발휘하지 못하며, 불안은 자신이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정말 통제감이 없을 때 생기는 것으로 불안과 우울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불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현상이 사라지면 불안도 사라지지만, 현실적인 위협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심한 불안을 느끼거나 위협적 요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경우 내면화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Crick, 1996).

2) 우울

아동기 우울이란 정서적인 기분의 변화로 슬픔, 침울함, 외로움,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적 장애를 의미하며, 아동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성인의 우울증에 비해 그 진단이 애매한 것으로 DSM-IV에서는 아동기 우울증이라는 별도의 진단을 내리지 않고 성인에게 사용되었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춘기 전 아동의 우울증은 반복된 격리, 불안이 경험과 연합된 것으로 불행한 기분, 흥미의 상실, 식사와 수면, 신체 활동의 변화, 피로, 집중곤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발달을 의미한다(장창현, 2006). 흔히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의 부수적 증상으로 과민함과 복통,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불평이 있다. 나아가 문제행동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의 존재를 판단할 때, 우울한 기분 또는 극심한 슬픔, 여러 활동에서의 흥미상실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며, 아동이 어릴수록 우울한 기분보다는 흥미의 상실이 나타나기가 더 쉽다(이승연, 신현숙, 이동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에 관한 생물학적 관점은 유전과 생화학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즉 주로 우울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

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최근 들어 크게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은 거의 모두가 성인 우울증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고찰되고 있다. 우울증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학적 설명은 그것이 분리나 상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Freud를 주축으로 하는 정신분석에서 우울증을 설명할 때에는 대상상실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상실은 실제적일 수도 있고(부모의 사망, 이혼), 상징적일 수도 있다. 이미 상실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동일시와 그 대상을 향한 양면적 감정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데서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심리 역동적 연구자들은 대상상실에서 비롯되는 자아존중감 상실과 절망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내부를 향해 돌려지는 공격성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려 하였다(Kessler, 1988). 또한 김현순(2005)은 소아기에 형성된 불안정 애착관계가 아동의 우울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행동주의에 입각한 설명들도 분리와 상실을 언급한다. Ferster(1974; 정명숙, 손영숙, 정현희, 2004에서 재인용)는 우울증의 발달에 부적절한 긍정적 강화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나 그로부터의 분리는 긍정적 강화의 원천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적절한 강화는 원하는 보상을 얻어내는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요인들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어린 시절의 상실과 이후의 우울증과의 관계는 직접적이지 않다. 그러한 상실은 오히려 배려의 부족,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이후에 개인이 장애를 일으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불행한 환경을 연쇄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Bifulco, et al., 1992).

인지적, 행동적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대인관계의 기술, 인지적 왜곡, 자기에 대한 관점, 통제에 대한 신념, 자기조절, 스트레스 등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Hammen, 1992). 또한 우울증을 학습된 좌절감으로 설명하는 학자들(Seligman & Peterson, 1986; 정명숙, 손영숙, 정현희, 2004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습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된 좌절감은 우울증의 특징적인 기분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다. 좌절감과 관련한 이론은 개인이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귀인양식을 강조한다. 부정적 사건에 대

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뿐 아니라 사건의 원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며 여러 상황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보는 설명양식은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 사건에 대해 그 원인이 외적이고 불안정하며 특정한 상황에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도 우울증적인 설명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귀인양식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절망감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절망감은 우울증을 불러일으킨다.

그 밖에 자기통제 행동(자기감찰, 자기평가, 자기강화)에 결함이 있으면 우울증 발병이 촉진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통제 모델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보다는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며, 지나치게 엄격한 자기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 강화는 거의 주지 않고 과도하게 처벌을 가한다. 따라서 우울증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기통제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우울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학문적 연구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유은애, 2008). 우울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들을 보면, 우울과 비행(곽금주, 문은영, 1993; 1995; 민병근, 이길홍, 장동산, 1985; 박재연, 2010), 양육태도, 탄력성(박민지, 유미숙, 2011), 완벽주의 성향(김혜진, 2006), 자기주장훈련(심후섭, 1989), 사회적지지(周偉東, 陸福山, 2008)와 관련된 소수의 연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우울의 예방적인 개입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 내면화 문제행동의 연구동향

1990년대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로 보완되었으며, 상당히 발전했는데, 아동기의 심각한 내면화 문제는 대략 2~5년 동안 지속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초기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성인기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고, 후기의 연구들은 아동기 내면화 문제행동의 장기적 지속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성인기까지 지

속될 가능성이 매우 강력함을 발견하였다. 즉 청소년기의 심각한 우울은 성인기 우울의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승연, 신현숙, 이동형, 2011).

이승연과 신현숙, 이동형(2011)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첫째, 생물학적 요인으로 아동과 성인의 생물학적-신경학적 기능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둘째, 가족 요인으로 가족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발달 및 유지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긴장된 가족관계, 전반적인 가족갈등, 빈약한 가족갈등 해결기술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 양식은 모두 아동기 우울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기분장애나 기타 심리적 문제의 가족력도 우울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취약성을 높인다.

셋째, 심리적 스트레스와 생활사건의 영향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드물거나 심각한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모든 연령층에서 우울, 불안 및 이와 관련된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부모와의 외상적 격리, 부모의 이혼, 재난의 경험, 입원, 가족구성원의 만성적인 의학적 문제, 신체적 및 성적 학대와 같은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은 모든 종류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 특정 스트레스와 매우 힘겨운 생활사건에 노출됨으로써 우울, 불안 및 기타 문제가 초래되는지의 여부는 취약성과 위험요인, 아동의 탄력성, 사용 가능한 사회지지지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넷째, 인지적 요인으로 세상에 대한 특정 사고 양식을 발달시키는 방식은 아동에게 우울과 불안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울과 관련해서는 인지적 영향의 세 가지 유력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귀인에 관한 모델인데,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거나, 사건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각하면, 무력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모델은 인지적 왜곡 또는 사고방식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부정적 편향에 관한 모델이다. 다른 하나의 모델은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역기능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발달시키는 자기통제 모델이다. 불안문제도 세상에 대한 아동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는데, 우울한 아동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아동도 사물에 대해 부정적이며 때로는 일반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왜곡된 사고 양식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아동과 청소년

은 많은 일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을 한다.

2006년도 한국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정신보건센터 31개소에서 94개 초등학교 학생 7,7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4명중 1명이 정서 및 행동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도 약 20%의 미국 아동들이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울, 불안 및 다른 심각한 문제행동들로 인해 소아정신과를 찾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2009; 차윤희, 김영희, 2010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멜번 로얄아동병원의 커뮤니티 아동보건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호주 어린이들 가운데 25%가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14%만이 상담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호주 동아일보, 2006. 10. 28). 이처럼 아동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문제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개인변인으로 성차(구미향, 이양희, 2003;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 2004), 아동의 과잉행동(김순호, 2012; 문대근, 문수백, 2011; 민병근, 이길홍, 장동산, 1985), 두려움(구미향, 이양희, 2003), 부적응 도식(정연옥, 2010), 정서조절능력(김명숙, 2001; 김순호, 2012), 자아존중감(차윤희, 김영희, 2010; 김경민, 정익중, 2009), 탄력성(김명숙, 2012; 한경리, 2009; 허선윤, 2010; 陳惠惠, 劉巧蘭, 胡冰霜, 2011; 李永鑫, 駱鵬程, 聶光輝, 2009; 李永鑫, 駱鵬程, 譚亞梅, 2008)을 중심으로 개인적 특성과 내면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아동의 환경변인으로 부모의 원가족 경험(정문자, 전연진, 2004;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 2004), 가족탄력성(김순호, 2012; 김은정, 2007), 보호자의 양육태도(김현정, 2001; 장창현, 2006;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 2004), 스트레스(차윤희, 김영희, 2010), 사회적지지(김명숙, 2012; 민미희, 이순형, 이옥경, 2005; 신호진, 노충래, 2007; 한경리, 2009; 陳惠惠, 劉巧蘭, 胡冰霜, 2011; 李志凱, 2009; 楊阿麗, 趙洪朋, 2011; 周偉東, 陸福山, 2008)를 중심으로 내면화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5. 외현화 문제행동

가. 외현화 문제행동의 개념

Achenbach(1991)는 아동기의 비행, 공격성 등과 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외재화되고 과소통제된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아동이 겪는 문제나 갈등들이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다양한 외현적인 행동인 비행, 공격성, 과잉행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절차상의 결함을 보이며 인내력이 부족하고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부모 및 교사들에 의해 흔히 발견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비행곡선을 보면 범죄율은 12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17세경에 절정을 이루어 19세까지 지속되다가 성인초기에 급격히 하락하여 이후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범죄율은 청소년기에 최고조로 높아져,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더 난폭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한다(Zuckerman, 1994; Borum, 2000; 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이희연, 2004에서 재인용). 극소수의 습관적 비행청소년들은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비행을 저지르고 성인기까지 비행이나 범죄를 지속하지만(Angenent et al., 1996), 다수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처음 비행행동을 보이며(Moffitt, 1993) 그 특성이 단순하고 일시적이며 충동적인 경향이 있고 대부분 성장함에 따라 사라진다.

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 비행의 원인이 기질적으로 자신의 성격이나 개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변 환경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은 개인이나 사회, 학교, 친구 중 어느 한 부분만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환경 전체와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 상황은 그 어느 시대보다 청소년이 비행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이석형, 2006).

이런 맥락에서 김명숙(2001)은 아동기에 습득된 청소년 범죄는 부적응 행동의 연장 또는 확대인 경우가 많아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문제행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결손가정 아동은 결손이유로 볼 때 아버지와 사별한 경우에 가장의 역할 공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김정옥, 2005), 이혼한 가족의 자녀는 공격적, 일탈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 반면, 부사망 가족의 자녀는 위축, 퇴행행동을 많이 보였다(Kiston & Morgan, 1990).

또한 공격성에 관한 중단 연구들에 의하면 공격성은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 작용의 산물로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의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생후 초기부터 공격적 행동의 경향이 높다. 특히 유아기와 아동기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고,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강화되므로 (Tremblay, 2000; 김숙형, 2004에서 재인용),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결손가정 아동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행동의 충동 조절이 어려워 타인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관찰가능한 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정의하며, 김준호 등(1990)이 번안한 비행과 공격성 척도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련변인

1) 공격성

박인경(2010)은 공격성을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공격자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에게도 해를 입히는 의도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공격성의 연구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공격성의 결과에 따른 정의로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공격성으로 인정하는 것이다(Prake & Slaby, 1983). 이러한 경우에 공격성을 매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인 행위나 우발적인 사고도 공격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 둘째, 행위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공격성을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곽금주, 1992). 이것은 행위자의 행동에서 관찰자가 의도를 추론해야 하고, 그 해석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

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관찰 가능한 행동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행동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인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적인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Bandura, 1973).

표 II-1 공격성의 유형구분기준 및 분류

학자	유형의 구분기준	유형분류
Hartup(1974)	공격성의 목적	도구적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
Dodge 등(1990)	공격성의 목적	주도적 공격성, 대응적 공격성
Frodi 등(1977)	공격성의 표현방식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Bussey와 Perry(1992)	공격성의 표현방식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 적의성
Crick와 Grotperter(1995)	공격성의 표현방식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박민정(2003)	공격성의 목적과 표현방식	외현적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구분 대응적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

* 출처: 조복희 등(2005)을 재구성함.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격성에 대한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격성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이다. Hartup(1974)은 공격성을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도구적 공격성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성이고, 적대적 공격성은 공격 행동 그 자체, 즉 행위자의 주된 목표가 희생자를 해치는 것이다. Dodge 등(1990)은 공격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공격성인 주도적 공격성과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공격성의 표현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Frodi 등(1977)은 공격성의 유형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으로 나누었는데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 대상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모든 반응을 의미하고,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상대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 공격성은 화나게 만든 사람 즉, 공격성을 유발시킨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고, 간

접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유발시킨 사람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하거나 일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공격성이 보다 체계적인 유형으로 분류가 이루어지면서 Bussey와 Perry(1992)는 공격행동을 목적에 따라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와 적의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Crick와 Grotmeter(1995)는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외현적 공격성은 타인을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인 공격을 포함한 직접적인 공격 형태이며,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손상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을 해하려는 공격성이다.

셋째, 위의 두 유형의 공격성의 정의를 결합시킨 것으로 박민정(2003)은 주도적 공격성을 다시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었고, 대응적 공격성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었다. 이 두 가지 공격 유형은 한국의 아동, 조선족 아동·청소년과 한족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조복희 등, 2005).

뿐만 아니라 공격성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 남아의 경우는 외현적인 공격성을 나타낼수록 또래관계에서 지각된 인기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여아는 관계적인 공격성을 나타낼수록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se et al., 2001). 그리고 조복희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도적 공격성과 대응적 공격성이라는 공격의 기능 측면과 그러한 목적에 따른 표현양식, 즉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 비행

비행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Anna Freud(1965)는 비행을 사회화 과정의 실패라고 하였다(김소현, 2000에서 재인용). Skinner(1971)는 비행을 성장과정에서 성인 또는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강화와 벌을 받고 다음에는 능동적으로 비행에 따르는 강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건을 선택함으로써 비행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보았

다.

이런 맥락에서 비행에 대한 정의는 흔히 그 사회의 교육풍토나 법률, 전통, 도덕, 관습 등에 따라 다르며, 한 사회 내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제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행이란 법률의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동등의 가치체계를 침범하는 등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된다. 대체적으로 보통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사회가 합의하고 도덕적, 관습적 기준으로 일탈된 행위를 의미하며, 자신과 타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이석형(2006)은 비행이란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일탈된 행동으로 일탈, 문제행동·부적응, 비행, 소년범죄로 구분하고, 그 순서대로 비행의 강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모(1981)는 법률접촉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 비행은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정당한 사유 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우관계, 유해한 장소출입, 상습적 타락, 구박, 성적행위, 그리고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 등 청소년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은경(2006)은 비행이라는 말은 법률적 용어로서 심리학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되는 용어로 성인의 경우는 비행이라는 용어 대신에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청소년의 비행이라는 용어는 성인의 범죄와 구분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은 흔히 자신의 욕구와 환경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문제행동이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정에 대한 욕구이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자신이나 사회의 규범적 가치체계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좌절감을 겪으면서, 자아개념을 부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내적욕구를 수용할 능력이 약화되어 목적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특성을 지닌다(구본용, 1992).

이처럼 비행의 정의는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규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비행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하여 표현되는 자신과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일련의 범규와 사회적 도덕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표 II-2 비행의 유형구분기준 및 분류

학자	유형의 구분기준	유형분류
Hetherington 등(1971)	성격 역동적 측면	1. 사회화된 공격적 비행 2. 신경증적 비행 3. 비사회화된 정신병리적 비행
Ross(1979)	자아통제력	1. 충동적 비행 2. 비사회화된 비행 3. 사회화된 비행
Kobrin 등(1980)	경험적 자료	1. 중비행자 2. 경비행자 3. 간헐적인 지위비행자
Weiner(1982)	비행의 원인	1. 사회적비행 2. 성격적 비행 3. 신경증적 비행 4. 정신병적 비행 5. 기질적 비행
Angenent 등(1996)	비행의 종류	1. 재산범죄 2. 폭력비행 3. 교통범죄 4. 약물비행 5. 성비행
김준호 등(2003)	비행의 종류	1. 폭력 2. 절도 3. 약물남용 4. 성비행 5. 사이버일탈
이석형(2006)	비행의 종류	1. 신경증 또는 정신병적 비행 2. 사회적 규범적 일탈 3. 약물비행 4. 폭력비행, 5. 성 비행

* 출처: 이석형(2006)을 재구성함.

비행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고 구분하는 기준과 유형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Hetherington 등(1971)은 성격 역동적 측면에서 3가지 유형 즉, 사회화된 공격적 비행, 신경증적 비행, 비사회화된 정신병리적 비행으로 구분하였지만, 비행의 원인이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Ross(1979)는 자아통제능력에 따라 3가지 유형 즉, 충동적 비행, 비사회화된 비행, 사회화된 비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Kobrin 등(1980)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청소년비행을 3가지 유형 즉 중비행, 경비행,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지위비행은 형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사회규범상 청소년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음주, 흡연, 허락받지 않은 외박, 가출 등의 일탈행위를 말한다. Angenent 등(1996)은 절도, 강도와 같은 재산비행, 집단 간 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소한 폭력까지 포함하는 폭력비행,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비행, 마약, 부탄가스 흡입과 같은 약물비행,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저질러지는 성비행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김준호 등(2003)은 5가지 유형 즉, 청소년비행의 유형을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폭력, 상점절도 침입절도를 포함한 절도,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를 포함한 성비행, 인터넷 중독으로 일컬어지는 사이버일탈로 구분하였다. 이석형(2006)은 비행

을 5가지 유형 즉, 신경증 또는 정신병적 비행, 사회적 규범적 이탈, 약물비행, 폭력비행, 성 비행으로 구분하였다. 신경증 또는 정신병적 비행은 개인적 요인이며, 나머지 유형들은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친구,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영향으로 발생하며 개인적 요인과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연구동향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반항적, 공격적 행동이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비행 및 문제행동이 청소년의 비행에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은(김행섭, 2002)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이다.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들은 단순히 그 발달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발전해 나간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발달사적 측면에서 아동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은 성인기의 장애로 이어지며(김보경, 1991),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은 비교적 일찍 학습되고 훈련되는 행동으로 비행청소년 중에는 이미 아동기에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김소현, 2000). 이런 맥락에서 공격성은 한 번 발현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유아기에 표출되기 시작하는 공격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공격성과 후기 공격성 간의 상관은 평균 .63 정도이며, 이러한 점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임인섭, 2012). Olweus(1979)의 장기 종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약물남용, 높은 수준의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청소년기의 비행과 성인기의 범죄 및 정신건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예언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이성정, 2006에서 재인용).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이론으로는 Lorenz(1966)를 중심으로 한 본능 이론, Dollard 등(1939)의 욕구 좌절이론, Bandura(1973)의 사회학습이론, Dodge(1980)의 사회정보처리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본능 이론을 주장한 Lorenz(1966)

는 인간은 누구나 강력한 자기과괴적 충동인 죽음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외부로 지향될 때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내부로 지향될 때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살을 기도하며,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둘째, 욕구 좌절이론은 Dollard 등(1939)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본능 이론의 내적인 접근 방법과는 달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을 공격성의 원인으로 보려는 이론이다. 욕구 좌절이란 목표 획득에 간섭을 받거나 방해받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좌절을 가져오는 원천에 대해 직접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물체를 대신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셋째, Bandura(1973)에 의하면 사회학습 이론은 부모의 체벌 같은 공격적 행동은 관찰이나 모방을 통하여 학습과 반복을 통해서 강화되며 이러한 행동들은 모델을 통하여 공격성을 조장한다. 부모의 기능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가족 내에서 공격적 행위를 배우는 중요한 원천으로 꼽히고 있다. 부모가 아동의 기강을 잡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쓸 경우, 아동은 그와 비슷한 공격적 요령으로 그들 또래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관찰되었다(Hoffman, 1960). 또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위문화는 또 하나의 공격성을 취득하게 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데(Bandura, 1978), 공격성이 높이 평가되는 환경에서 가장 다수의 공격적 행위가 발달한다(Short, 1968). 특히 현대사회의 다양한 언론매체들은 공격성에 대한 상징적인 모델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만화 등은 새로운 수법의 범죄나 다양한 유형의 공격적 행동을 성장하는 아동에게 매우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미영, 1998).

넷째, Dodge(1980)가 주장한 사회정보처리 이론은 공격 행위를 중재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밝혔다. 공격적 특성을 지닌 아동은 모호한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반응을 탐색할 때도 공격적인 대안을 더 선호하고 다른 대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지과정은 공격적인 행동반응으로 연결되고, 표출되어 또래의 보복적인 반격을 받기 쉽고, 이것이 공격적인 아동의 적대적인 해석을 강화시켜서 다시 공격적인 행동으로 순환될 수 있다(Dodge, 1980). 그러므로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적 정

보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격적 행동을 하도록 정보를 처리해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Dodge & Crick, 1990).

이러한 공격성 발달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공격성은 아동 개인의 생득적인 요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학습되는 사회적인 요인, 부적절한 양육행동 등의 욕구좌절 요인, 타인의 의도를 해석하는 정보처리 요인 등이 맞물려 다시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악순환 속에서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 신체적 공격성을 주로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공격성을 크게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유형화하고 다시 외현적 공격성을 구체적인 보상과 같은 외적 강화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주도적 공격성과 위협이나 도발과 같은 공격성의 원인을 공격하는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주도적 공격성은 개인이 공격 대상자에게 직접 행하는 신체적인 공격과 언어적인 공격을 포함하고, 반응적 공격성은 욕구-좌절 공격모델에 기초한 좌절이나 위협에 대한 분노 및 자기 방어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여 연구되고 있다(김순호, 2012). 국외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공격성을 유형화한 연구(Galen, et al., 1997)들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공격성을 유형화한 연구 및 관련 변인에 대한 보고가 매우 적다(박혜경, 2001).

좀 더 구체적으로 공격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격성 이론에 대한 타당화 연구(고미영, 1998; Dollard, et al., 1939; Lorenz, 1966)와 공격성 유형에 따른 연구(장유진, 2007; Bussey & Perry, 1984; Lesser, 1959; Crick & Grotpeter, 1995; Frodi et al., 1997)가 이루어졌고, 아동의 공격성과 부부갈등(김민정, 도현심, 2001), 양육태도(김민정, 도현심, 2001; 박혜경, 2001; 임인섭, 2012), 학교생활(박혜원, 박민정, 2005b; 이성정, 2006), 교사와 또래관계(박혜원, 박민정, 2006), 정서조절능력(김순호, 2012; 김희영, 2010; 박인경, 2010; 박혜경, 2001), 정보처리 능력(Dodge, 1980; Dodge & Crick, 1990) 사회적지지(심승원, 2001), 내면화 문제 행동, 탄력성(김순호, 2012)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비행의 근원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공식적으로 비행자라고 낙인찍히지는 않더라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사회적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특정 발달시기에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곽금주, 문은영, 1995). 따라

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분류하면,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에서 찾는 생물학적 접근방법, 비행행위 당시의 즉각적인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사태지향적 접근방법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접근방법,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가족관계 이론, 인격발달의 왜곡이나 정서적 갈등을 중시하는 정신역동학적 접근방법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민병근, 이길홍, 장동산, 1985).

Patterson 등(1989)은 비행에 대한 두 가지 발달 경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시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발달경로로서 부모의 강압적인 훈육 및 아동의 강압적인 행동문제가 성인기의 범죄로 계속 발전한다는 모델이다. 즉 비행의 첫 단계인 아동초기에는 부모의 강압적 훈육과 소홀한 감독으로 인해 아동의 품행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품행문제를 지닌 아동은 일찍 신체적 공격이나 물리적 방법 등 강제적 수단을 써서 자신의 요구나 뜻을 관철하는 것을 배우고, 이러한 강압적 문제해결 방식을 동료들에게도 적용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시간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학업성적이 뒤떨어지게 된다. 즉 아동중기인 두 번째 단계에서도 또래집단의 배척과 학습부진과 같은 학교생활의 실패로 인해 우울한 기분과 비행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일탈집단에 어울리기 쉽고, 따라서 세 번째 단계인 아동후기와 청소년기에 만성적인 비행을 하게 된다.

둘째, 청소년기라는 발달 시기의 심리적 특징에 의해 비행이 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비행경로이다. 청소년기가 되어 일어나는 신체적, 생물학적인 변화나 가족관계의 변화들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비행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기제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Patterson 등(1989)의 이론적인 관점이다.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양육태도, 가족간의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 이혼이나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환경요인, 동료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관한 변인의 대부분이 아동기에 지속되는 만성적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면(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청소년기 급증하는 비행은 사춘기 시기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곽금주, 문은영, 1993). 또한 중학생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 부모의 훈육보다는 교우간의 강압적인 행동 변인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권정혜, 김수현, 이봉건, 1992). 따라서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나타나는 비행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비행 성향을 보이는 결손가정 아동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행의 원인과 연구동향(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김준호 등, 1990; 민병근, 이길홍, 장동산, 1985; 박미정, 1992; 이희연, 2004; Angenent & Anton, 1996; Loeber et al., 1991; Moffitt, 1993; Patterson et al., 1989), 비행의 유형에 관한 연구(김준호 등, 2003; 이석형, 2006; Angenent et al., 1996; Hetherington et al., 1971; Ross, 1979; Weiner, 1982), 비행 개선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구본용, 1998; 김행섭, 2002;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그리고 비행과 우울(곽금주, 문은영, 1993; 1995), 스트레스(김소현, 2000), 어머니와의 애착(정혜미, 2008) 등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상에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하면, 개인 변인으로 성차(김문정, 정문자, 2004; 정문자, 전연진, 2004), 아동의 부적응도식(정연옥, 2010), 자아존중감(김경민, 정익중, 2009), 자기통제력(신효진, 노충래, 2007), 내면화 문제행동(문대근, 문수백, 2011); 탄력성(김명숙 등, 2012; 김명숙, 김중호, 염순정, 2011; 李永鑫, 駱鵬程, 聶光輝, 2009; 李志凱, 2009)을 중심으로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리고 환경 변인으로 생활환경(조복희, 이주연, 2005), 부모의 양육태도(김명숙, 김중호, 염순정, 2011; 김문정, 정문자, 2004; 정연옥, 2010), 부부갈등(정문자, 전연진, 2004), 가족탄력성(김은정, 2007), 사회적지지(김명숙 등, 2012; 신효진, 노충래, 2007; 陳惠惠, 劉巧蘭, 胡冰霜, 2011; 李永鑫, 駱鵬程, 聶光輝, 2009)를 중심으로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성을 보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는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강지현, 오경자, 2011),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문대근, 문수백, 2011)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임인섭, 2012; 오영진, 2010) 등으로 매우 한정되었고, 아동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김명숙, 2001; 김명숙, 2012; 김명숙 등, 2012; 김문정, 정문자, 2004; 김봉진, 김철구, 표미자, 최순, 1991; 김은정, 2007; 김형태, 2011; 차윤희, 김영희, 2010; 한경리, 2009) 문제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조작적

인 정의를 하였지만,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6.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가. 사회적지지와 탄력성과의 관계

사회적지지는 부모, 교사, 친구 등 친밀한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아동이 얻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지원과 인지적 특성, 성격적 특성, 정서 등과의 관계를 주로 보고하고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자극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Hobfoll, 1985). 또한 박정희와 박정미(2010)는 탄력적인 아동들의 특징으로 학업에 있어 지적 성취도가 높고,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태(2011)의 연구에 의하면 탄력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성향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지지와 같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결손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지표로서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을 들 수 있다.

여러 실증적인 연구(강희경, 2006; 김명숙 등, 2012; 김수정, 2008; 김승경, 강문희, 2005; 김형태, 2011; 정지영, 임정하, 2011; 李永鑫, 駱鵬程, 聶光輝, 2009; 李志凱, 2009)들을 보면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가족이나 부모, 친구, 교사, 양육부모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탄력성은 역경이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므로, 보다 탄력적인 아동은 높은 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김승경(2004)은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탄력성은 교사지지에 의해 간접적으로, 친구지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또

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도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숙 등, 2012).

또한 여아의 탄력성이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이 아버지 혹은 부모 쌍방 모두가 없는 결손가정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고, 결손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李永鑫, 駱鵬程, 譚亞梅, 2008).. 그리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나 교사는 아동에게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나타났다(권연희, 박경자, 2003).

이런 맥락에서李志凱(2009)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탄력성, 사회적지지, 지지이용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활용을 더 잘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남아는 성별, 성격, 사회역할, 사춘기, 심리발달 등의 원인으로 하여 사회적지지 자원을 통합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자 아이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탄력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높여준다면, 결손가정 아동들이 타인들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자극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결손가정 아동들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긴장 이내수준과 충동통제를 조절하는 문제해결 전략을 신장시키는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언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나.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될 경우, 개인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스트레스 완충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Cobb, 1976; Cohen & Wills, 1985). 이처럼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원은 내면화 문제행동인 우울, 불안과도 관련되어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Turner(1981)는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한미현(1996)은 아동이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이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Schmeelk-Cone과 Zimmerman(2003)은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관한 종단 연구결과,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보고한 반면,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보고했다. 또한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에서는 높은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집단에서 보다 또래와 부모로부터의 사회적지지와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周偉東과 陸福山(2008)은 정상 청소년보다 우울증 청소년은 아동기에 부모의 이해와 지지보다는 엄격, 거부, 처벌 등 양육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울증 청소년은 발병하기 전에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정상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객관적으로는 물질적 지지가 결핍하고, 주관적으로는 따뜻한 배려, 존중, 이해와 같은 정서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부족하였으며, 지지 이용률도 낮아 좌절 혹은 스트레스사건에서도 즉각적인 해소를 하지 못하거나 비건설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아와 신희천(2006)의 연구에서는 지지원 중에서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매우 높지만 교사지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여기서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지지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비록 결손가정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는 환경적 변화에 처한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정 및 사회환경 등 외부의 긍정적인 태도와 수용, 지지로 내면화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을 수 있다. 이진아(2007)는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있어 가족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결속력은 아동의 가족지지 인식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은 증상

이 곁으로 드러나지 않아 임상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적고,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한 심리사회적 손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Weisz, et al., 1987). 그러므로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인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손가정 아동들이 더욱더 존중되고 사랑받는다는 정서적 지지가 아동들의 존재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 사회적지지와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정성인(1998)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은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지각할 경우 높은 적응행동의 수준을 보인다. 김아영과 이명희, 전혜원, 이다솜, 임인혜(2007)는 청소년의 지각하는 관계성과 비행 간의 종단적 관계분석에서 교사와 부모와의 관계성이 높을수록 비행의 경험이 줄고, 그러한 관계성의 변화가 정적일 때 비행의 변화도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조선족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에서 교사관계가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이고 아동이 학교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사와 부모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력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족 청소년에게는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과 교사와의 관계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조복희 등, 2005).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지만(김명숙 등, 2012; 한경리, 2009), 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한경리, 2009)와 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명숙 등, 2012)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결손가정 아동은 가족, 친구, 교사지지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유연한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하게 되며, 나아가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

라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을 형성시키고(민미희, 이순형, 이옥경, 2005),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문승태, 김민배, 2005)을 하고, 가족 외에 교사, 친구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라.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좌절과 역경을 만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부적응 현상들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큰 역경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통해 주목받게 된 개념이 탄력성이다. 탄력적인 집단의 성격 및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탄력적인 집단이 취약적인 집단보다 불안과 우울에 덜 취약할 뿐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고은정, 1997), 스트레스 지각 상황에서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다(Tellegen, 1985).

또한 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수준이 낮고(박재연, 2010; 현은민, 박혜영, 2005), 스트레스 또는 문제 상황에서 보다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능력을 보였다(현은민, 박혜영, 2005). 박재연(2010)은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연구에서도 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낮은 집단의 아동보다 정서지능이 높았다(천희영, 옥경희, 황혜정, 2008). 박원주와 이기학(2010)은 청소년의 탄력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탄력성은 긍정정서를 매개로 우울과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즉 탄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우울과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적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역경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접하더라도 이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다면 우울과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연구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행동과 정서적 문제를 포함하는 정신과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 미래의 적응에도 문제를 보이기 쉽다(Rutter, 1985). 나아가 외부적 환경의 변화나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과도하게 충동과 긴장을 억제하는 아동의 경우, 청소년기가 되면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 신체적 호소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김순호(2012)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를 잘 활용할 수 있지만, 탄력성이 낮은 아동들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여 우울,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명숙 등, 2012).

이런 맥락에서 탄력성은 긍정적인 적응요소로 역경 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긴장 인내수준과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으로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탄력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안정된 성격과 낮은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낮다. 또한 높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로 자기 수용적일 뿐 아니라 학교나 사회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또래관계에서도 적절하고 공감적인 정서표현능력을 보이며 인지적으로도 유능하고 영리하다(Block & Kremen, 199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탄력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긴장 인내수준과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으로, 내면화 문제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며, 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마. 탄력성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탄력성은 역경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으로,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균형을 유지하고 항상시키도록 하는 역동적 능력이다(Block & Block, 1980). 즉 발달적 위기에도 불

구하고 개인을 보호해주는 개인내적인 고유한 성격특성으로, 아동기에 높은 탄력성을 보인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유연성 있는 반응 경향성으로 인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정신병리를 적게 보이며 학교적응이나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

김형태(2011)는 탄력성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적응 수준을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나 위기를 겪으면서도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차이는 탄력성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다.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탄력성은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한층 더 완화시켜 주는 완충작용을 하였다(김명숙 등, 2012; 김명숙, 김종호, 염순정, 2011). 또한 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결손가정 아동들은 낮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으며 학교 적응수준도 높았다(천희영, 옥경희, 황혜정, 2008).

이해리(2007)의 연구에서 역경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탄력성 수준이 높을 경우 다른 또래의 청소년들처럼 우울·분노, 좌절감 등을 경험하지만 그러한 내적 갈등과 외적 충격들에 대해 인내하며 비행의 유혹에 저항하고 오히려 이타적 행동과 친사회적 태도를 발달시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고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고 학업성취 수준이 높으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05; 이예승, 2004). 이처럼 탄력성은 개인이 가진 잠재적인 중요한 자원으로,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바.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결손가정 아동은 가족의 구조적 상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정상가정 아동보다 많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경험하고(Amato, 1993; Amato & Keith, 1991; Burnette, 1998),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호, 2012; 문대근, 문수백, 2011). 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 아동이 우울이나 불안의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의 하나로 비행과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과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심각해질수록

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에 영향을 주어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최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초기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양상이나 발생 정도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4세 이전의 남아와 여아는 유사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나타내지만(Richman et al., 1985), 약 4세가 되면서, 성에 따라 그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남아들이 과소통제된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비율은 여아들에 비해 거의 2~3배로 증가되는 반면, 과다통제된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에서는 남아와 여아가 비슷한 정도의 발생 정도를 유지한다(Offord et al., 1987).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여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증가되고 그 발생 빈도가 남아를 훨씬 능가하여(Keenan & Shaw, 1997), 성인기까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장애나 불안 장애 등에서 거의 2배의 발생빈도를 보인다(Kessler et al., 1994). 게다가 아동기의 우울은 아동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심리사회적 손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Weisz, et al., 1987).

그리고 12세에서 16세 청소년이 주로 나타내는 문제행동 유형은 비행, 공격성, 불안, 사회적 위축, 우울 등으로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오경자, 이혜련, 1991). 이런 맥락에서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서로 관련이 있다(곽금주, 문은영, 1993; 김순호, 2012; 민병근, 이길홍, 장동산, 1985, Achenbach, 1991). 민병근과 장동산, 이길홍(1985)은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비행성향이 높고, 특히 비행 청소년일수록 일반 청소년에 비해 초조 등 정신운동성 우울성향이 높으며, 자극과민성, 자살충동 그리고 불만이 많고 체중감소, 불면, 식욕감퇴 등 주기적 우울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우울이 충동적인 행동이나 행동장애, 약물남용, 자살시도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장규, 김선욱, 류인균, 조맹제, 2001).

청소년비행과 우울 성향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행청소년들의 우울 성향이 높고(송옥현, 1977; 한원선, 1978), 우울한 청소년들이 비행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Conger & Peterson, 1984),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이 우울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비행행동을 하는 가면성 우울증 증세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Carlson, 1980).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직접 호소하는 경우는 적지만 우울할 때 우울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비행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Carlson, 1980; Conger & Peterson, 1984). 따라서 이석형(2006)은 우울에 의해 여러 가지 비행의 위험요소들을 촉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비행은 우울의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결과, 선행연구들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 또는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중 각 하위척도를 중심으로 부적응에 따른 문제행동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었다. 특히 결손가정 아동들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 간의 갈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형성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사.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탄력성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승경과 강문희(2005)는 이혼가족 아동의 경우, 양육부모지지와 친구지지가 아동의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부모지지가 친구지지보다 아동의 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이혼가족 아동에게 이혼 후 달라진 가족환경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생활 영역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친구보다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긍정적 정서, 개인의 생활상황에서 예측성과 안정감,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Cohen과 Wills(1985)의 연구결과로부터 사회적 지원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켜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으며,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지

지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환경적 자원으로서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조언, 지도, 칭찬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데(Ell, 1984),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중재 또는 완화시켜(Cohen & Hoberman, 1983)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2000)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아동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교사나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지지 및 자아개념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부모와 교사지지 또한 이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정보적 지지가 높으면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장연정, 2002).

이혜경(2007)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친구와 가족지지는 아동의 우울, 불안, 비행 등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남아의 경우 친구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며, 여아의 경우 친구와 가족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문제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송경영, 김영희, 황성실, 2011; 姚小燕, 2012). 박원주와 이기학(2010)은 청소년의 탄력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탄력성은 긍정정서를 매개로 우울·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탄력성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우울 및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경험하고 있으며,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은 역경이나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접하더라도 이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다면 우울과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김순호(2012)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아동의 탄력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해 아동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위험한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문제상황에 직면하면 이전의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아동의 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문제행동에 관한 경로분석에서(김명숙 등, 2012; 김형태, 2011; 장진아, 신희천, 2006; 한경리, 2009)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탄력성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지지(김명숙 등, 2012; 장진아, 신희천, 2006)는 탄력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받으면 개인이 역경에 대한 인내력이 강해지고 탄력성이 높아져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게 되지만, 만약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탄력성이 낮아져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응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로부터 외부적인 지지보다는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숙 등(2012), 김형태(2011), 장진아, 신희천(2006)과 한경리(2009) 등의 연구들은 모두 연구과정에서 사회적지지, 탄력성,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탄력성은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내면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매개 효과도 예측해 볼 수 있다.

7.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김명숙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족 결혼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완전매개로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탄력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행동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李永鑫, 駱鵬程, 聶光輝(2009)의 사회적지지가 결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한족 아동의 지지 이용도가 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물질적인 지지를 충분히 주어야 자녀가 지지이용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陳惠惠, 劉巧蘭, 胡冰霜(2011)은 좋은 또래관계와 사회적지지는 결혼가정 아동의 탄력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는 아동은 우울, 공포, 고독감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楊阿麗, 趙洪朋(2011)의 유동아동(流動兒童)의 생활변화 사건, 사회적지지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변화 사건과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 생활변화 사건이 많을수록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지만,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생활변화 사건과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어 적응을 완화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조선족과 한족아동 모두 가족, 교사, 친구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탄력성은 향상되고, 나아가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숙(2012)의 연구에 의하면 한족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조선족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아동의 탄력성이 높은

수록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이고,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응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김명숙 등, 2012; 陳惠惠, 劉巧蘭, 胡冰霜, 2011; 李永鑫, 駱鵬程, 聶光輝, 2009; 楊阿麗, 趙洪朋, 2011)로부터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한족 아동보다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한족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조선족 아동이 한족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내면화 문제행동에서도 평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과 한족 아동 모두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내면화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시적 문화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과는 다른 가치체계를 학습하는 연변지역 아동의 발달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이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행 및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가족, 학교, 사회에서 높은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에 외현적인 문제행동보다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김명숙, 2012).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조선족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성별, 탄력성, 가족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에는 친구지지, 가족지지, 학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족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가족지지, 성별, 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에는 가족지지,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김명숙 등, 2012).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기질에 관한 비교연구(박혜원, 박민정, 2005a)에 따르면, 조선족 아동은 기질 요인 중 친화, 공격성, 우울·불안이 한족 아동에 비해 높고, 한족 아동은 활동통제와 주의가 조선족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은 조선족 아동이 조선민족의 고유한 전통도 학습해야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의 문화에만 익숙해도 되는 한족 아동보다 친화력이 높고 사회가 다원화되어 억제되었던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면서 공격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비교연구(김봉진 등, 1991)도 조선족 아동은 활

동과다, 잔혹한 행위, 규칙위반 등 외향성 행동문제가 한족 아동보다 많이 나타났다. 또한 조선족 아동의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은 조선족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중국의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부모의 다수가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자녀에 대해 과거와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세계일보, 2005. 1. 1.). 박혜원과 박민정(2005b)은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애착 소원성은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으로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외현적 괴롭힘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족의 경우 아직까지 서구 문화권의 영향을 조선족보다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동양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질 특성인 활동통제와 주의(Ahadi et al., 1993)가 조선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박혜원, 박민정, 2005a). 나아가 소심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며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적인 내향성 문제행동도 조선족 아동보다 많이 나타났다(김봉진 등, 1991). 한편 북경의 한족 어머니가 다원화된 사회인 홍콩의 한족 어머니보다 공격성에 대한 억압을 더 많이 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Lai et al., 2000), 한족 아동이 각종 우울·불안을 신체증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김봉진 등, 1991). 또한 1년간 아동이 보고한 신체 폭력과 관련하여 한족 아동 전체 및 가해자에 따른 가족, 또래, 교사에 의한 폭력은 모두 조선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그리고 한족 아동이 조선족 아동에 비해 폭력 경험 위험률이 3배나 높았고, 남학생, 빈곤, 결손가정, 어린 연령이 위험인자로 나타났다(김대호, 김광일, 이해원, 박용천, 이동근, 2005).

박혜원과 박민정(2006)의 조선족과 한족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비교연구에서도 한족 청소년은 어머니와의 애착요인이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선족 청소년은 교사와 또래 관련변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의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이시라, 박혜원, 2005a; 이시라, 박혜원, 2005b)를 고려할 때, 조선족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부모의 인력수출로 인한 부모와의 별거경험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한족은 조선족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 지지망 구축 등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를 더 많이 선택한다고 하였다(박용천, 김광일, 방금녀, 고복자, 김대호, 1997). 김명숙(2012)의 연변지역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에 따른 문제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한족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조선족 아동이 한족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내면화 문제행동에서도 평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조선족과 한족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조선족과 한족 아동들은 문제행동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민족 간의 기질과 사회문화적 차이, 가족의 구조적 결손 원인,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구축망 등의 차이에 기인된다. 그러므로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아동의 개인적 특성 또는 미시적 가족환경 특성이 그들의 문제행동에 더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가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 간에 차이가 있고, 변인들 간의 경로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및 변수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가 있는데, 외생변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변수를 말하며, 내생변수는 영향을 받으면서 주거나, 영향을 받기만 하는 변수를 말한다. 흔히 통용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해 보면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같다. 그리고 내생변수는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는 매개변수와 영향을 받기만 하는 종속변수 모두를 포함한다.

표 Ⅲ-1 연구변수

외생/내생변수	잠재변수	관측변수
외생변수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내생변수	탄력성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우울
		불안
	외현화 문제행동	비행
		공격성

따라서 표 Ⅲ-1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외생변수에 탄력성,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내생변수에 해당한다. 내생변수 중에서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매개변수이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최종적인 종속변수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

런데 Achenbach(1991)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문제행동을 특정 문제행동이 아닌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심도 있게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관점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내면과 외면으로 표출하는 방식의 차이로 파악하여, 연구모형에서 선후의 순서가 아닌 동일한 축의 사각형 모양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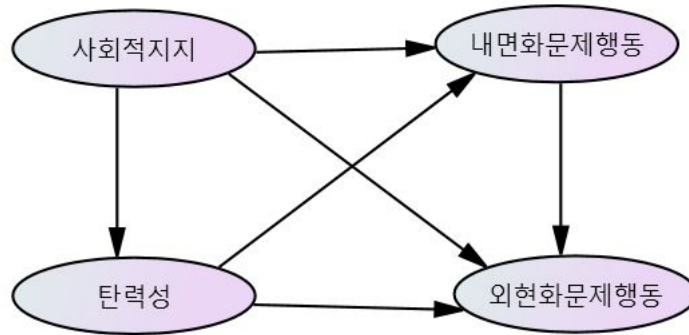


그림 III-1 가설적 연구모형

2. 연구가설

(1)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1.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

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2-1.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연변지역 연길시, 화룡시, 룡정시, 안도현에 위치한 23개 초등학교 중 50%에 해당하는 12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결손가정 학생 약 2,000명 가운데 4개 지역의 인구비율에 따라 각각 40%, 20%, 20%, 20%의 비율로 표집하였다. 총 6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543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 59부를 제외한 조선족 265명과 한족 219명의 총 484명에 대한 자료(89.1%)를 분석하였다.

민족별로 성별의 비율을 살펴보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은 총 265명으로 남아는 131명(49.4%), 여아는 134명(50.6%), 학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5학년은 130명(49.1%), 6학년은 135명(50.9%)이었다. 거주가족의 비율을 살펴보면, 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56명(21.1%), 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72명(27.2%),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122명(46.0%), 친척과 함께 살거나 혹은 위탁하고 있는 아동은 15명(5.7%)이었다. 결손원인의 비율은 사망이 6명(2.3%), 이혼이 42명(15.8%), 외국 인력송출이 188명(70.9%), 국내취업이 29명(10.9%)의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한족 결손가정 아동은 총 219명으로 남아는 94명(42.9%), 여아는 125명(57.1%), 학년은 5학년이 97명(44.3%), 6학년이 122명(55.7%)이었다. 거주가족의 형태는 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 57명(26.0%), 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115명(52.5%),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42명(19.2%), 친척과 함께 살거나 혹은 위탁하고 있는 아동은 5명(2.3%)으로 나타났다. 결손원인을 살펴보면, 사망은 11명(5.0%), 이혼은 79명(36.1%), 외국 인력송출은 52명(23.7%), 국내취업은 77명(35.2%)의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조선족 아동은 주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면, 한족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결손원인으로 조선족 아동은 주로 외국으로 인한 인력송출과 이혼인데 비해, 한족 아동은 주로 부모의 이혼과 국내 기타 지역으로의 취업이 주된 원인이었다.

표 IV-1 연구대상

(조선족 n=265; 한족 n=219)

구분		조선족(명, %)	한족(명, %)
성별	남	131(49.4)	94(42.9)
	여	134(50.6)	125(57.1)
학년	5학년	130(49.1)	97(44.3)
	6학년	135(50.9)	122(55.7)
거주 가족	부	56(21.1)	57(26.0)
	모	72(27.2)	115(52.5)
	조부모	122(46.0)	42(19.2)
	친척	15(5.7)	5(2.3)
결혼 원인	사망	6(2.3)	11(5.0)
	이혼	42(15.8)	79(36.1)
	출국	188(70.9)	52(23.7)
	별거	29(10.9)	77(35.2)

2. 측정도구

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를 한미현(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연변지역 조선족 학령기 아동이 문장의 문맥이나 단어에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적지지는 친구지지 8개 문항, 가족지지 8개 문항, 교사지지 8개 문항 총 24개 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예비조사에서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사회적지지 척도

사회적지지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친구지지	1,2*,3,4,5,6,7,8	8	.89
가족지지	9*,10,11,12,13,14,15,16	8	.84
교사지지	17,18,19*,20*,21,22,23,24	8	.87
전체		24	.92

* 역문항

나. 탄력성

탄력성은 이해리와 조한익(200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연변지역 학령기 아동이 문장의 문맥이나 단어에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중국사회의 중소학교 교육실정에 맞게 종교적 부분을 제외하고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 3개 하위요인별로 각각 6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예비조사에서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탄력성 척도

탄력성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인지적 탄력성	1,2,3,4,5,6,	6	.73
정서적 탄력성	7,8,9,10,11,12,	6	.71
의지적 탄력성	13,14*,15,16,17,18	6	.73
전체		18	.89

* 역문항

다. 내면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우울척도는 심후섭(1989)이 아동에 맞게 Kovacs(1981)의 우울검사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불안척도는 Larzelere 등(1989)이 영유아기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TBC(Toddler Behavior Checklist)와 아동·청소년용 자기 보고식 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 그리고 Reynolds 등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RCMAS)을 최진숙, 조수철(1990)이 번안하여 아동에 맞게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연변지역 학령기 아동이 문장의 문맥이나 단어에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한경리(2009)의 연구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의 척도는 하위요인이 없는 하나의 구성 개념만을 측정하는 단일 차원의 척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우울, 불안 문항을 추출하였다. 불안은 7문항, 우울은 14개 문항 총 21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예비조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내면화 문제행동 척도

내면화 문제행동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불안	1,2,3,4,5,6,7	7	.75
우울	8,9,10,11,12,13,14,15,16,17, 18,19,20,21	14	.89
전체		21	.91

라. 외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비행과 공격성은 김준호 등(1990)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비행척도와 아동·청소년용 자기 보고식 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연변지역 학령기 아동이 문장의 문맥이나 단어에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비행은 7문항, 공격성은 10문항 총 17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예비조사에서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

외현화 문제행동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비행	4,5,6,13,14,16,17	7	.74
공격성	1,2,3,7,8,9,10,11,12,15	10	.84
전체		17	.87

특히 한족 아동의 설문지는 조선족 설문지를 제주대학교 중문학과 박사과정 대학원 생과 교육학과 상담심리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것을 연변지역 초등학교 현장에 있는 중국어교사와 상담교사 등 7인 전문가들의 수정을 거쳐 예비조사를 한 후 재수정을 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원인변인으로 설정한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직·간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2012년 1~8월까지 연변지역 초등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담임과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 평가척도 질문지를 아동들에게 직접 측정하고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법(질문지)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정답이나 오답이 없음을 지시문에 명시하고 익명으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결과는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현장에서 재차 설명하고 밝혀두었다.

4. 자료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 기초분석으로 표본의 특성 정리를 위한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 간 관측변수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의 해결 및 가설 검증을 위하여 Amos 20.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검증을 하였다. 구체적

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모형에서 4개 측정모형은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를 확인적 요인분석의 통계분석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거하고, 구조모형에서는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문수백, 2009; 이인희, 2010; 이지혜, 이인희, 2010). 단위부하량 고정법에 따라 잠재변수의 변량 값을 1로 고정시킨 후, 모델인 증 심사를 위해 모수치와 정보수를 파악한 다음 모형추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추정하였다. 모형적합도는 부합도 지수 χ^2 값,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을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ices), 증분 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ices), 간명 적합도 지수(parsimony fit indices)로 분류할 수 있다. 절대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이 입력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 지수는 연구모형을 다른 모형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 자체를 평가하므로 절대 적합도 지수라고 부른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수로 χ^2 통계량, Q값(χ^2/df), GFI(goodness of fit index, 적합도 지수), AGFI(adjusted GFI, 조정된 적합도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approximation, 근사원소간평균차이) 등이 있다. 다음으로 증분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이 null모형(모든 측정 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에 비해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수로 NFI(normed fit index, 표준 적합도 지수), NNFI(non normed fit index, 비표준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상대 적합도 지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명 적합도 지수는 여러 개의 경쟁모형들이 있는 경우 적합도와 간결성을 고려하여 더 나은 모형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수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수에는 PGFI(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간명기초 적합도 지수), PNFI(parsimony normed fit index, 간명표준 적합도 지수), PCFI(parsimony comparative fit index, 간명비교 적합도 지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정보 표준) 등이 있다(김계수, 2010).

셋째, 구조모형 변인들 간의 직접 효과는 유의수준 .05~.001에서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원인 변인인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집단 간 모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하였다(이지혜, 2009).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집단별로 적합도 지수, 집단 간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집단 간 구조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 구조계수의 동일성 검증,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 구조공분산 동일성 검증, 측정오차의 동일성 검증을 통해 집단 간 구조적방정식모형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V. 연구결과

1. 기초자료

가. 관측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는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등 4가지이고 각 잠재변수들의 관측변수들은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V-1과 같다.

표 V-1 관측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n=484)

잠재변수	관측변수	M	SD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4.21	0.74
	친구지지	3.64	0.82
	교사지지	3.74	0.75
탄력성	인지적 탄력성	3.67	0.63
	정서적 탄력성	3.49	0.62
	의지적 탄력성	3.59	0.59
내면화 문제행동	우울	2.02	0.82
	불안	2.31	0.80
외현화 문제행동	비행	1.47	0.49
	공격성	1.75	0.66

사회적지지의 관측변수 평균을 살펴보면,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가족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친구지지를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탄력성은 인지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이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하는 인지적 탄력성은 높고, 공감과 수용, 그리고 감정 및 충동조절을 하는 정서적 탄력성은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우울의 평균(2.02)은 불안의 평균(2.31)보다 낮았다. 따라서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서 우울보다 불안의 평균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알 수 있는 비행의 평균(1.47)은 공격성의 평균(1.75)보다 낮다. 따라서 아동들의 비행보다 공격성의 평균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결손가정 아동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지지와 탄력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모두 평균이 3.49~4.21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모두 평균수준이 1.47~2.31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나.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관측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를 살펴보면, 표 V-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관측변수들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의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탄력성의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의 우울과 불안, 외현화 문제행동의 비행과 공격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V-2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x1	x2	x3	x4	x5	x6	x7	x8	x9
x2	.38**								
x3	.51**	.44**							
x4	.47**	.45**	.45**						
x5	.42**	.45**	.41**	.64**					
x6	.46**	.51**	.44**	.56**	.54**				
x7	-.41**	-.44**	-.40**	-.47**	-.41**	-.43**			
x8	-.45**	-.49**	-.46**	-.54**	-.51**	-.47**	.69**		
x9	-.56**	-.53**	-.48**	-.52**	-.43**	-.54**	.59**	.69**	
x10	-.45**	-.43**	-.42**	-.44**	-.40**	-.44**	.49**	.63**	.69**

x1:가족지지, x2:친구지지, x3:교사지지, x4:인지적 탄력성, x5:정서적 탄력성, x6: 의지적 탄력성, x7: 우울, x8: 불안, x9: 비행, x10: 공격성

** $p < .01$

다.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관측변수들의 평균차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 검증 결과는 표 V-3과 같다.

표 V-3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 관측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조선족(265명)		한족(219명)		t	p	
	M	SD	M	SD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4.09	.73	4.36	.72	4.17***	.000
	친구지지	3.52	.74	3.78	.89	3.51***	.000
	교사지지	3.58	.67	3.94	.79	5.41***	.000
탄력성	인지적 탄력성	3.36	.43	4.04	.65	13.64***	.000
	정서적 탄력성	3.31	.52	3.70	.67	7.19***	.000
	의지적 탄력성	3.50	.55	3.69	.61	3.67***	.000
내면화	우울	2.11	.69	1.91	.94	-2.75**	.006
문제행동	불안	2.43	.70	2.17	.90	-3.54***	.000
외현화	비행	1.60	.44	1.31	.50	-6.56***	.000
문제행동	공격성	1.95	.59	1.51	.65	-7.70***	.000

** $p < .01$, *** $p < .001$

우선 사회적지지에 있어서 가족지지와 교사지지, 친구지지 모두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평균 수준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t=4.17$, $p < .001$; $t=3.51$, $p < .001$; $t=5.41$, $p < .001$), 탄력성에서도 인지적 탄력성과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 모두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평균 수준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13.64$, $p < .001$; $t=7.19$, $p < .001$; $t=3.67$, $p < .001$). 내면화 문제행동은 우울과($t=-2.75$, $p < .01$), 불안에 있어서($t=-3.54$, $p < .001$)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평균 수준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비행과 공격성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평균 수준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6.56$, $p < .001$; $t=-7.70$, $p < .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보다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의 평균 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내면화 문제행

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 수준은 모두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한족 아동이 조선족 아동 보다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높고, 조선족 아동이 한족 아동보다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김명숙, 2012). 나아가 조선족 아동은 한족 아동보다 우울, 불안, 공격성, 규칙위반 등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박혜원, 박민정, 2005a; 김봉진 등, 1991). 그리고 결손가정 아동이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김명숙, 김성봉, 임원선, 2010; 김명숙, 정혜원, 임원선, 2011).

2. 측정모형 분석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본 연구의 잠재변수인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V-4와 같다.

표 V-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
기준	확률값 .05이상	.05이하: 아주양호, .05~.08:양호	.9이상	.9이상	.9이상	.9이상	.9이상	.5이상
측정값	71.946 (df=29, p=.000)	.055	.972	.946	.973	.983	.971	.512

우선 측정모형이 본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χ^2 ,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이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과 측정값을

비교하였을 때 χ^2 값은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든 결과 값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χ^2 검증의 p 값은 최소한 유의수준 5%보다 커야 두 공분산행렬이 같다는 영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χ^2 검증은 $p=.000$ 으로 나왔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형 기법을 응용한 사회과학 실증분석 연구들은 상당수가 p 값이 0에 가까워 영가설이 기각된다. 그 이유는 χ^2 값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본크기의 민감성과 영가설의 엄격성 등의 이유로 모형적합에 대한 판단은 χ^2 검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적합도 지수들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김대업, 2008).

χ^2 값 이외에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RMSEA는 .05이하라면 표본과 모형의 오류가 아주 작은 매우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하고 .05에서 .08 사이면 오류의 정도가 적절한 정도로 괜찮은 모형으로 평가한다. 또한 GFI(.9이상), AGFI(.9이상), TLI(.9이상), CFI(.9이상), NFI(.9이상), PGFI(.5이상)과 같은 기준 적합도 지수에 부합되어야 한다(문수백, 2009).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켜볼 때, 본 연구에서의 적합도 지수 측정값은 기준에 충족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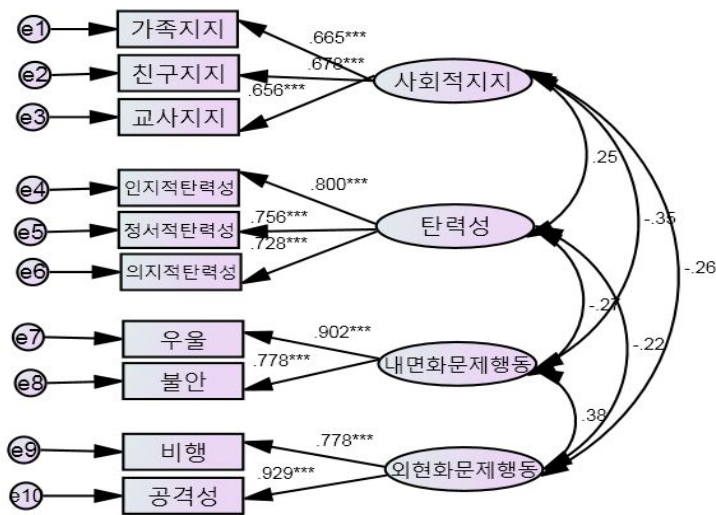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잠재변수인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모형을 분석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V-5와 같고 측정모형의 표준화 계수는 그림 V-1과 같다.

표 V-5의 측정모형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지표변인별 요인부하량이 평균 .50이상(문수백, 2009)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렴 타당도를 만족시켜 각각 원래 측정하고자 했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V-1을 살펴보면,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수가 -.22~.38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 모형의 변별 타당도(잠재변인별 상관이 높지 않아야 함)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p
잠재변수	관측변수	계수	계수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886	.665	.070	12.644	.000***
	친구지지	1.000	.678			
	교사지지	.886	.656	.069	12.789	.000***
탄력성	인지적 탄력성	1.000	.800			
	정서적 탄력성	.993	.756	.056	16.550	.000***
	의지적 탄력성	.843	.728	.053	15.920	.000***
내면화	우울	1.000	.902			
문제행동	불안	.844	.778	.042	19.998	.000***
외현화	비행	.625	.778	.031	19.896	.000***
문제행동	공격성	1.000	.929			

*** $p < .001$



* 주: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V-1 측정모형

3. 구조모형 분석

가.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모형 추정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통한 초기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V-6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
측정값	71.946 (df=29, p=.000)	.055	.972	.946	.973	.983	.971	.512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V-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RMSEA(.055), GFI(.972), AGFI(.946), TLI(.973), CFI(.983), NFI(.971), PGFI(.512) 등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V-7과 같다. 우선 잠재변수들 간의 유의성 판단은 비표준화 계수 부분의 C.R.값으로 한다. C.R.값이 ± 1.96 보다 크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며, ± 2.58 보다 크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를 제외한 ‘사회적지지→탄력성’,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경로의 C.R.값이 2.58이상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으며,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 경로의 C.R.값이 1.96이상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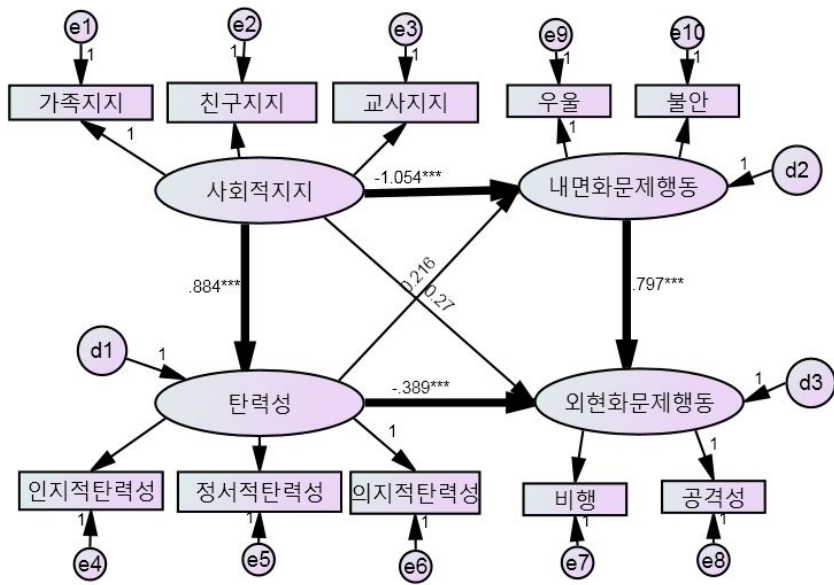
유의한 4개의 경로들에 대해서 표준화 계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지지→탄력성’은 .884,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1.054,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797로 모두 $p < .001$ 수

준에서,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389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탄력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사회적지지	→ 탄력성	.808	.884	.065	12.412	.000***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1.407	-1.054	.307	-4.576	.000***
탄력성	→ 내면화 문제행동	.316	.216	.312	1.014	.311
사회적지지	→ 외현화 문제행동	.296	.270	.303	.979	.327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467	-.389	.200	-2.330	.020*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655	.797	.128	5.130	.000***
사회적지지	→ 친구지지	1.000	.678			.000***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886	.656	.070	12.644	
사회적지지	→ 가족지지	.886	.665	.069	12.789	.000***
탄력성	→ 정서적 탄력성	.933	.756	.056	16.550	.000***
탄력성	→ 의지적 탄력성	.843	.728	.053	15.920	
탄력성	→ 인지적 탄력성	1.000	.800			.000***
내면화 문제행동	→ 우울	1.000	.902			
내면화 문제행동	→ 불안	.844	.778	.042	19.998	.000***
외현화 문제행동	→ 공격성	1.000	.929			
외현화 문제행동	→ 비행	.625	.778	.031	19.896	.000***

* $p < .05$, *** $p < .001$



- * 주1: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 주2: 경로계수가 유의한 선은 굵은 선, 유의하지 않은 것은 약한 선임

그림 V-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다. 모형수정 및 최종 구조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기준에 의하여 모형다듬기를 하였다. 다시 말해 연구모형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제시된 경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경쟁모형을 채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경쟁모형은 동일한 관측변수와 동일한 잠재변수를 가지면서 경로의 수가 다른 내포모형으로, 연구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와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를 위계적으로 제거한 모형들이다. 이때 모형비교를 위해서는 χ^2 값의 차이검증이 필요하다(이지혜, 2009에서 재인용). χ^2 의 영가설은 두 모형의 모든 모수들이 같다는 것이며, 대립가설은 두 모형의 모수들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2개의 경로들을 위계적으로 제거하였다. 결과는 표 V-8과 같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H₁, H₂, H₃ 경쟁모형은 χ^2 값의 통계량 차이가 각

각 1.263, 1.346, 2.204로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에서 경로를 하나 혹은 두 개를 제거하였으나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간명성은 H_1 , H_2 의 경우 $df=1$ 만큼, 그리고 H_3 의 경우는 $df=2$ 만큼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모형에서 실증적 기준에 따라 제거된 경로의 H_1 , H_2 , H_3 경쟁모형과 연구모형 중 가장 간명한 모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V-8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의 χ^2 차이 값과 자유도 차이 값

모형	제거된 경로	$\chi^2 (df)$	$\chi^2 (dfa)$	p
연구모형		71.946(29)	-	
H_1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	73.209(30)	1.263(1)	.261
H_2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	73.292(30)	1.346(1)	.246
H_3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	74.150(31)	2.204(2)	.332

가장 간명하고 적합도 지수가 높은 모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한 적합도 지수는 χ^2 ,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 이외에도 경쟁모형을 채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AIC(Akai Information Criaterion)를 추가하였다. AIC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 있어서 간명도 문제뿐만 아니라 통계적 적합도 및 추정치 모수의 수를 고려한다. 따라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모형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며, AIC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 보면 표 V-9와 같다.

표 V-9에서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RMSEA, GFI, AGFI, TLI, CFI, NFI는 우수한 모형들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모형비교에서 간명도 지수를 알 수 있는 PGFI와 AIC 지수를 비교하였다. 적합도 지수가 높을수록 우수한 모형임을 알 수 있는 PGFI의 경우, 수정모형 H_3 이 높게 나왔고, 낮을수록 적합도가 우수하며 간명도가 높은 모형임을 알 수 있는 AIC 또한 수정모형이 초기모형에 비해 낮게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유지하면서도 간명도가 가장 개선되는

방향으로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와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를 제거한 H₃ 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V-9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	AIC
연구 모형	71.946 (df=29, p=.000)	.055	.972	.946	.973	.983	.971	.512	124
H ₁	73.209 (df=30, p=.000)	.055	.971	.947	.974	.983	.971	.530	123
H ₂	73.292 (df=30, p=.000)	.055	.971	.947	.974	.983	.971	.530	123
H ₃	74.150 (df=31, p=.000)	.054	.971	.948	.975	.983	.971	.547	122

라.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다중상관치

연구모형에서 ‘사회적지지→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와 ‘탄력성→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를 제거한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V-10과 같다.

우선 표 V-10에서 C.R.값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유의성 판단결과 모두 유의수준이 1~5%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탄력성’은 .865,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840이었다. 즉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고,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탄력성은 높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235로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669로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0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사회적지지	→ 탄력성	.786	.865	.060	13.177	.000***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1.117	-.840	.079	-14.108	.000***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282	-.235	.076	-3.704	.000***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548	.669	.055	10.034	.000***
사회적지지	→ 친구지지	1.000	.682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895	.667	.070	12.728	.000***
사회적지지	→ 가족지지	.884	.668	.069	12.746	.000***
탄력성	→ 정서적 탄력성	.930	.755	.056	16.520	.000***
탄력성	→ 의지적 탄력성	.843	.729	.053	15.937	.000***
탄력성	→ 인지적 탄력성	1.000	.801			
내면화 문제행동	→ 우울	1.000	.905			
내면화 문제행동	→ 불안	.842	.778	.042	19.985	.000***
외현화 문제행동	→ 공격성	1.000	.928			
외현화 문제행동	→ 비행	.627	.780	.031	19.937	.000***

*** $p < .001$

다음으로 최종 구조모형의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확인하여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V-11과 같다. 우선 탄력성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4.8% 설명되며, 내면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0.5% 설명되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의해 73.2% 설명되고 있다.

표 V-11 최종 구조모형의 다중상관치

변수	다중상관치(R^2)
사회적지지	-
탄력성	.748
내면화 문제행동	.705
외현화 문제행동	.732

다.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최종 구조모형에서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과효과, 즉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구조모형의 모든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여 근사적인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다(김대업, 2008). 구체적인 잠재변수들 간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V-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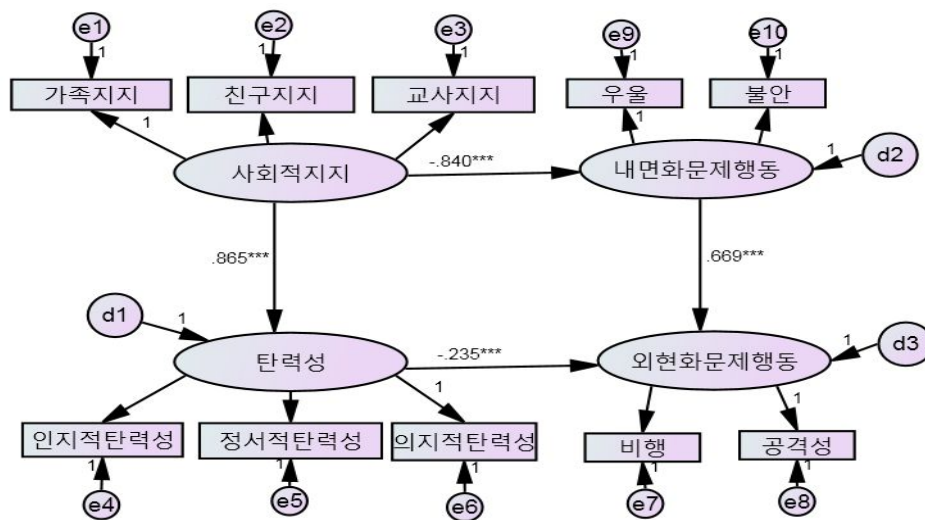
표 V-12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적지지	→ 탄력성	.865***		.865***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840***		-.840***
사회적지지	→ 외현화 문제행동		-.765**	-.765**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235***		-.235***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669***		.669***

** $p < .01$, *** $p < .001$

표 V-12에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865 만큼의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840의 부(-)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235의 부(-)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669의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765의 부(-)적인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잠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곱한 것인데, 간접효과 중에서 ‘사회적지지→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가 -.203이고,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가 -.562이다. 따라서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지지를 높이면 탄력성을 신장시켜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지지를 높이면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게 되며 나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지지를 증진하면 탄력성을 높이거나 혹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하면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V-3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바. 가설검증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가설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1.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탄력성(.865)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고,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840)에 대하여 $p<.001$ 수준에서 유의한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가설1-2.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를 검증한 결과, 잠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곱한 -.203 만큼의 유의한 負(-)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으면, 탄력성의 향상을 보이고, 결국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1-3.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을 검증한 결과, 잠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곱한 -.562 만큼의 유의한 負(-)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으면, 내면화 문제행동의 감소를 보이고, 결국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1-4.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를 검증한 결과,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현화 문제행동(-.235)에 대하여 $p<.001$ 수준에서 유의한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1-4>는 기각되었다.

가설1-5.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를 검증한 결과,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5>는 기각되었다.

가설1-6.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6>을 검증한 결과,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669)에 대하여 $p<.001$ 수준에서 유의한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6>은 지지되었다.

4. 민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은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상이한 집단에 따라 동일한지 혹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실시하는 분석이다(이지혜, 2009). 즉 모형의 전반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동일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변수들 간 전반적인 구조적 관계와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동일성(차이)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측정모

형과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은 그림 V-1의 모형과 구조모형으로는 최종모형이었던 그림 V-3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측정결과는 표 V-13과 같다.

표 V-13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측정모형과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RMSEA	GFI	AGFI	TLI	CFI	NFI	PGFI
측정 모형	조선족 (n=265)	64.812 (df=29, p=.000)	.068	.953	.910	.957	.972	.951	.502
	한족 (n=219)	51.043 (df=29, p=.007)	.060	.957	.918	.968	.979	.954	.504
구조 모형	조선족 (n=265)	67.590 (df=31, p=.000)	.067	.951	.913	.959	.972	.949	.536
	한족 (n=219)	51.502 (df=31, p=.012)	.056	.956	.922	.972	.981	.954	.539
측정 동일성 제약		135.472 (df=68, p=.000)	.046	.947	.914	.962	.971	.944	.585

표 V-13에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조선족 결손가정 집단은 $\chi^2=64.812(df=29, p=.000)$, RMSEA=.068, GFI=.953, AGFI=.910, TLI=.957, CFI=.972, NFI=.951, PGFI=.502이었고, 한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은 $\chi^2=51.043(df=29, p=.007)$, RMSEA=.060, GFI=.957, AGFI=.918, TLI=.968, CFI=.979, NFI=.954, PGFI=.504로 적합도가 괜찮은 편이었다.

그리고 구조모형에 대하여 민족별로 적합도 지수를 알아본 결과,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은 $\chi^2=67.590(df=31, p=.000)$, RMSEA=.067, GFI=.951, AGFI=.913, TLI=.959, CFI=.972, NFI=.949, PGFI=.536이었고, 한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은 $\chi^2=51.502(df=31, p=.012)$, RMSEA=.056, GFI=.956, AGFI=.922, TLI=.972, CFI=.981, NFI=.954, PGFI=.539로 구조모형 역시 두 집단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괜찮은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측정 동일성 제약을 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도 $\chi^2=135.472$

($df=68$, $p=.000$), RMSEA=.046, GFI=.947, AGFI=.914, TLI=.962, CFI=.971, NFI=.944, PGFI=.585로 모두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집단 간에 교차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단 간의 회귀계수가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나.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구조방정식모형의 동일성 검증

모형의 집단 간 동일성이란 집단 간에 동일한 형태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집단 간 동일성 검증의 기본적 방법은 위계적 모형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최종 구조모형에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은 비제약모형(S_0)과 경로계수가 두 집단 간에 같은 것으로 제약한 모형 (S_1), 경로계수뿐만 아니라 잠재변수 간 분산/공분산까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한 모형(S_2), 그리고 경로계수, 잠재변수 간 분산/공분산, 잠재변수의 오차분산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모형(S_3)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표 V-14와 같다.

표 V-14 최종 구조모형의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

	위계모형	$\chi^2 (df)$	χ^2 / df	p
S_0	비제약모형	119.090(62)	-	
S_1	경로계수 동일	135.472(68)	16.381(6)	.012*
S_2	경로계수, 잠재변수 간 분산/공분산 동일	151.111(73)	32.021(11)	.001***
S_3	경로계수, 잠재변수 간 분산/공분산, 잠재변수의 오차분산 동일	270.584(86)	151.494(24)	.000***

* $p<.05$, *** $p<.001$

표 V-14에서 비제약모형에 비해 경로계수가 두 집단 간에 같은 것으로 제약한 S_1 의 모형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로계수 외에도 잠재변수의 분산/공분산까지도 같은 것으로 제약한 S_2 모형과 경로계수, 잠재변수 간 분산/공분산, 그리고 잠재변수의 오차분산까지도 제약한 S_3 모형도 비제약모

형에 비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경우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5와 같다.

표 V-15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사회적지지 → 탄력성	.468	.847	.047	9.914	.000***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975	-.860	.078	-12.539	.000***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059	-.035	.160	-.371	.711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679	.821	.082	8.253	.000***
사회적지지 → 친구지지	1.000	.772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754	.643	.075	10.059	.000***
사회적지지 → 가족지지	.777	.609	.082	9.500	.000***
탄력성 → 정서적 탄력성	1.085	.656	.112	9.662	.000***
탄력성 → 의지적 탄력성	1.393	.797	.123	11.365	.000***
탄력성 → 인지적 탄력성	1.000	.737			
내면화 문제행동 → 우울	1.000	.934			
내면화 문제행동 → 불안	.817	.756	.055	14.949	.000***
외현화 문제행동 → 공격성	1.000	.902			
외현화 문제행동 → 비행	.621	.755	.047	13.228	.000***

*** $p<.001$

표 V-15에서 C.R.값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유의성 판단결과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구

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탄력성’은 .847,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 행동’은 -.860의 경로계수를 보였다. 그러므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고,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경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고,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821로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正(+)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V-16에서 변수들의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1.7% 설명되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4.0% 설명된다.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에 의해 71.7% 설명되고 있다.

표 V-16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다중상관치

변수	다중상관치(R^2)
사회적지지	-
탄력성	.717
내면화 문제행동	.740
외현화 문제행동	.717

다음으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과효과, 즉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잠재변수들의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V-17과 같다.

표 V-17에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847 만큼의 正(+)적인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내면화 문제행동에 -.860 만큼의 負(-)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외현화 문제행동에 -.706의 負(-)적인 간접효과를 지닌다.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

제 행동에 .821 만큼의 正(+)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V-17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적지지	→ 탄력성	.847***	.847***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860***	-.860***	
사회적지지	→ 외현화 문제행동	-.706*		-.706*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821***	.821***	

* $p < .05$, *** $p < .001$

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경우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8과 같다.

표 V-18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사회적지지	→ 탄력성	.889	.874	.113	7.872	.000***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1.360	-.838	.168	-8.110	.000***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191	-.166	.111	-1.719	.086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515	.714	.074	6.915	.000***
사회적지지	→ 친구지지	1.000	.592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937	.620	.131	7.148	.000***
사회적지지	→ 가족지지	.961	.695	.124	7.731	.000***
탄력성	→ 정서적 탄력성	.948	.750	.084	11.271	.000***
탄력성	→ 의지적 탄력성	.816	.712	.077	10.645	.000***
탄력성	→ 인지적 탄력성	1.000	.822			
내면화 문제행동	→ 우울	1.000	.902			
내면화 문제행동	→ 불안	.810	.769	.062	13.157	.000***
외현화 문제행동	→ 공격성	1.000	.945			
외현화 문제행동	→ 비행	.615	.751	.049	12.487	.000***

*** $p < .001$

C.R.값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유의성 판단결과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탄력성’은 .874,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은 -.838의 경로계수를 보였다. 그러므로 한쪽 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고,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쪽 결손가정 아동의 경우 사회적지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고,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는 .714로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쪽 결손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V-19에서 변수들의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쪽 결손가정 아동들의 탄력성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6.4% 설명되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에 의해 70.3% 설명된다.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에 의해 71.1% 설명되고 있다.

표 V-19 한쪽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다중상관치

변수	다중상관치(R^2)
사회적지지	-
탄력성	.764
내면화 문제행동	.703
외현화 문제행동	.711

다음으로 한쪽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과효과, 즉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잠재변수들의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V-20과 같다.

표 V-20에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874 만큼의 正(+)적인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내면화 문제행동에 -.838 만큼의 負(-)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외현화 문제행동에 -.598의 負(-)적인 간접효과를 지닌다. 또한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714 만큼의 正(+)적인 직접효과를 가지지만,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V-20 한쪽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효과의 분해

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적지지 → 탄력성	.874***	.874***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838***	-.838***	
사회적지지 → 외현화 문제행동	-.598*		-.598*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714***	.714***	

* $p < .05$, *** $p < .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쪽 결손가정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지지를 많이 지각하도록 가족, 친구, 교사지지를 증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면화 문제행동의 매개효과를 고려하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 조선족과 한쪽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쪽 결손가정 아동집단이 어떤 경로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때 모수추정치는 비표준화 계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집단 내 비교에서는 표준화 계수가 적절하지만,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집단 간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비표준화 계수로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문수백, 2009).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표 V-21과 같다.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쪽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경우 모두 ‘탄력성→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집단 모두 '탄력성→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는 경로이며, 두 집단 모두에서 경로는 같지만 경로계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21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비표준화 계수

경로	조선족(n=265명)		한족(219명)	
	비표준화 계수	C.R.	비표준화 계수	C.R.
사회적지지 → 탄력성	.468	9.914***	.889	7.872***
사회적지지 → 내면화 문제행동	-.975	-12.539***	-1.360	-8.110***
탄력성 → 외현화 문제행동	-.059	-.371	-.191	-1.719
내면화 문제행동 → 외현화 문제행동	.679	8.253***	.515	6.915***

*** $p < .001$

마.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등가제약 분석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영향관계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유의한 경로계수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로계수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좀 더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두 모수 간에 등가제약을 가하였다. 집단 간 등가제약은 집단 간에 특정 모수추정치(경로계수)가 동일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비제약모형과 경로계수에 대해 등가제약을 한 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등가제약을 한 경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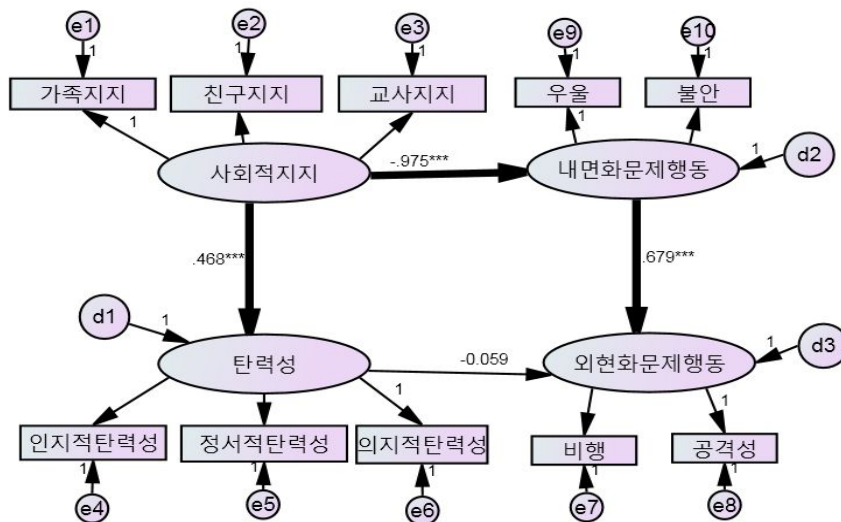
우선 표 V-2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경로에 등가제약을 한 모형의 χ^2 값이 비제약모형의 χ^2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에 구조모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χ^2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로는 '사회적지지→탄력성'과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으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

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에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4와 그림 V-5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지지가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표 V-22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등가제약 분석결과

위계모형	$\chi^2 (df)$	$\chi^2 (dfa)$	p
비제약모형	135.472(68)	-	
사회적지지→탄력성	141.954(69)	6.483(1)	.011*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	139.779(69)	4.307(1)	.038*
내면화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137.194(69)	1.723(1)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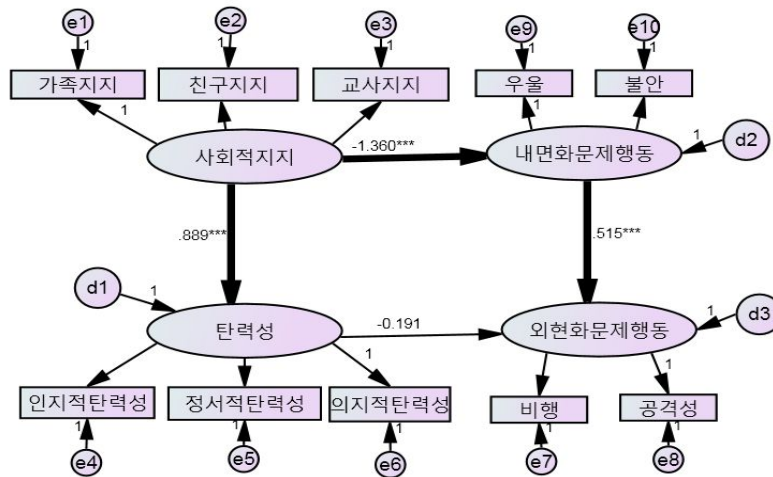
* $p < .05$



* 주1: 모든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 주2: 경로계수가 유의한 선은 굵은 선, 유의하지 않은 것은 약한 선임

그림 V-4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주1: 모든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 주2: 경로계수가 유의한 선은 굵은 선, 유의하지 않은 것은 약한 선임

그림 V-5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사. 가설검증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2>의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2-1.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선족과 한족의 구조방정식모형은 경로계수, 잠재변수 간 분산/공분산, 그리고 잠재변수의 오차분석까지 제약한 모형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를 확인 후 집단 간 등가제약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설 2-1>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두 집단의 경로 중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인 경로는 ‘사회적지지→탄력성’과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 경로였다. ‘사회적지지→탄력성’ 경로의 비표준화 계수를 비교한 결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경로계수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경로계수에 비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므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경우,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正(+)적인 직접효과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 경로의 비표준화 계수를 비교한 결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경로계수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 집단의 경로계수에 비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런 결과는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負(-)적인 직접효과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영향력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한족 아동이 조선족 아동 보다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된다(김명숙, 2012). 그리고 한족 아동들은 조선족 아동들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 지지망 구축과 같은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를 더 많이 취한다고 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박용천 등, 1997).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변지역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변지역의 연길시, 화룡시, 룡정시, 안도현에 위치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5~6학년 결손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최종적으로 484명(조선족 265명, 한족 219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경로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연구모형이 실제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초기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 사회적지지와 외현화 문제행동,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장 적절한 모형을 찾고자 모형 비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정모형 확인 전략을 통하여 초기모형에서 사회적지지와 외현화 문제행동,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인 경로가 삭제된 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초기모형과 비슷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형으로서 더 간명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모형보다 더 좋은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최종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가.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논의

1) 사회적지지, 탄력성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김명숙 등, 2012; 장진아, 신희천, 2006; 한경리, 2009)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받으면 개인이 역경에 대한 인내력이 강해지고 탄력성이 높아져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게 되지만, 만약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탄력성이 낮아져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적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원인 변인으로서 간접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 상담센터, 학교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모 중심, 교사 중심, 또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가족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 아동들이므로 교사와 친구지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 과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할 수 있는 학교의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해 학습과 생활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위기 가운데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손가정 아동이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와 같은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를 보호하는 탄력성이 높아져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궁

정적으로 해결하거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보호기제로 외현적 문제행동을 감소하거나 적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사회적지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지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론을 통해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김명숙 등, 2012; 김순호, 2012; 문대근, 문수백, 2011; 한경리, 2009)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 친구, 교사와 같이 아동발달에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지각되는 따뜻한 배려, 존중, 이해와 같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개인의 생활에서 예측성과 안정감,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여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며,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므로 궁극적으로 스트레스사건에서 건설적으로 대처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손가정 아동들이 정상가정보다 가족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부모와 아동의 대리양육자 중심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기의 중요한 사회성 발달과업의 하나인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래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대인관계의 부적응과 상실의 경험이 우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손가정 아동들

의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아동들의 사회적지지를 높일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은 감소되면서 외현화 문제행동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통한 간접효과보다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김순호, 2012)와는 달리,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우울, 불안 간에 높은 負(-)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탄력성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들(고은정, 1997; 김명숙 등, 2012; 박재연, 2010; 현은민, 박혜영, 2005; Block, 2006; Block & Kremen, 1996; Rutter, 1985; Tellegen, 1985)을 지지하지만,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김명숙 등, 2012; 한경리, 2009)에서 탄력성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힌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론을 통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순호(2012)의 연구에서는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 차이는 동일한 잠재변수에 대해 각자의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조작적 정의의 차이 때문이거나, 동일한 잠재변수이지만 구성되는 하위 측정 변인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으며,

측정 대상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김순호(2012)는 탄력성을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 맥락이 요구하는 기능인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탄력성 척도는 하위요인이 없는 하나의 구성 개념만을 측정하는 단일 차원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잠재변수인 탄력성의 조작적 정의와 하위요인의 구성 및 연구대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김명숙 등, 2012; 김명숙, 김종호, 염순정, 2011)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탄력성은 결손가정 아동들이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반응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하는 역동적 능력(Block & Block, 198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내적인 성격특성이 결손가정 아동들의 비행과 공격성을 적당하게 통제해 주어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현화 문제행동은 사회화 과정의 부적응으로, 결손가정 아동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실제 경험 간의 부조화 또는 기타 행동 및 현실과의 부조화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기에(Tremblay, et al., 1995; 김순호, 2012에서 재인용),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개인적 내적 특성인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과 유아 교육현장에 적용한다면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 혹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론을 통해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탄력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의지적 탄력성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우울, 불안과는 負(-)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탄력성이 높으면 내면화 문제행동이 완화될 수 있지만 탄력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는 탄력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곽금주, 문은영, 1993; 김순호, 2012; 문대근, 문수백, 2011, 민병근, 이길홍, 장동산, 1985; Achenbach, 1991)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12~16세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우울, 불안, 비행과 공격성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오경자, 이해련, 1991)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아동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우울과 불안한 행동이 지속되면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비행과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아동기의 우울은 아동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심리사회적 손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ovacs, et al., 1988), 내면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아기부터 내면화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조기개입이 중요하다. 특히 인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개인 내적 특성을 가진다면 비행과 공격성 억제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아동의 성차에 따른 학부모, 담임 및 상담교사에 대한 교육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에서 활용한다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적지지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강희경, 2006; 김명숙 등, 2012; 김수정, 2008; 김승경, 강문희, 2005; 김형태, 2011; 장진아, 신희천, 2006; 정지영, 임정하, 2011; 한경리, 2009;李志凱, 2009;李永鑫,駱鵬程,聶光輝, 2009)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사회적지지와 탄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와 탄력성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 대리양육자, 친구, 교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결손가정 아동들의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높여준다면, 아동들은 타인들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자극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결손가정 아동들은 위기나 어려움에서도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긴장인내수준과 충동통제를 조율하는 문제해결 전략에 대한 유연성을 신장할 수 있

는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를 증진하기 위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이나 교육기관, 사회복지 시설에서 활용한다면 결손가정 아동의 탄력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이진아, 2007; 한미현, 1996; 周偉東, 陸福山, 2008; Turner, 1981)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와 내면화 문제행동은 높은 부적상관이 있으며, 가족, 대리양육자, 친구, 교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본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결손가정 아동들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는 환경적 변화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 학교 및 사회환경 등 외부의 긍정적인 태도와 수용, 지지로 내면화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면화 문제행동은 결손가정 아동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행동이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증상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아 임상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적고,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한 심리사회적 손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Weisz, et al., 1987). 이런 맥락에서 결손가정 아동들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이진아, 2007). 따라서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아동들은 더욱더 사랑을 받고 존중되어진다는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로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사회적 지지를 신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한경리, 2009)와 달리 사회적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들은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될 경우, 개인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스트레스 완충 과정을 통해 이들 요소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Cobb, 1976; Cohen & Wills, 1985)로부터 사회적지지는 결손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진아와 신희천(2006)의 연구에서는 지지원 중에서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상관이 매우 높지만 교사지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사회적지지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사지지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할 비행과 공격성 점수의 분산과 표준편차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할 우울과 불안의 분산과 표준편차보다 크지 않은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正(+)적인 직접효과가 있었고,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를 주었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正(+)적인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해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통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환경변인으로서 사회적지지는 개인변인인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손가정 아동들이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와 같은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보호기제인 탄력성은 증가하고 내면화 문제행동도 완화되거나 감소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행정기관, 상담센터, 학교, 지역사회, 가정에서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상담 교육이나 조기개입을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 중심, 교사중심, 또래중심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손가정 아동들이 부모의 구조적 결손으로 정상가정보다 가족지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교사지거나 친구지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의 형성과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이 또래집단을 통하여 소속감과 우정, 자존감을 증진할 수 있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를 높여주면, 아동들의 탄력성이 증진되거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것이며, 나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통한 간접효과보다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차원에서 탄력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나.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논의

우선 두 집단 간에 동일한 형태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적 관계의 동일성 검증 결과, 비제약모형에 비해 경로계수가 두 집단 간에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S_1 의 모형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로계수 외에도 잠재변수의 분산/공분산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S_2 모형과 경로계수, 잠재변수 간 분산/공

분산, 그리고 잠재변수의 오차분석까지 제약한 S_3 모형도 비제약모형에 비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구조적 관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과 한족 아동들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김명숙, 2012; 김봉진 등, 1991; 박혜원, 박민정, 2005a; 박용천 등, 1997).

이상의 결과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생활환경, 아동의 기질 특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비록 모두 부모의 일방 혹은 쌍방의 구조적 결손으로 형성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지만, 한족 아동들은 52.5%가 모, 26%가 부, 19.2%가 조부모, 2.3%가 친척과 함께 생활하는 반면, 조선족 아동들은 46%가 조부모, 27.2%가 모, 21.1%가 부, 5.7%가 친척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한 결손가정이 형성된 이유를 보면, 조선족은 외국 인력송출이 70.9%, 이혼이 15.9%, 국내 기타 지역으로의 취업이 10.9%, 사망이 2.3%라면, 반면에 한족은 이혼이 36.1%, 국내 기타 지역에서의 취업이 25.3%, 외국 인력송출이 23.7%, 사망이 5%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 아동의 부모들은 외국 인력수출 비율이 높고 감당하기 힘든 출입국 비용과 외국에서 취업이 쉽지 않는 요인 등으로 결손기간이 길게는 10여년, 짧게는 5~6년으로 나타나(朴今海, 鄭小新, 2009), 전통적인 가정구조의 생활방식과 가족기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런 변화는 아동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아가 조선족 아동의 우울,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은 조선족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중국의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부모의 다수가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자녀에 대해 과거와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과 관계가 있다(세계일보, 2005. 1. 1). 따라서 아동발달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하고, 어머니와의 애착요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박혜원, 박민정, 2006; 조복희, 이주연, 2005),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의 부동한 생활환경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지지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손가정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 탄력성의 평균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

하게 높았으며,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있어서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위협이나 역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 낙관적인 의지력, 감정과 충동을 조율하고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하는 정서적인 탄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조선족 아동은 기질 요인 중 친화, 공격성, 우울, 불안이 한족 아동에 비해 높고, 한족 아동은 활동통제와 주의가 조선족 아동에 비해 높다는 박혜원과 박민정(2005a)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나아가 조선족 아동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전통도 학습해야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의 문화에만 익숙해도 되는 한족 아동보다 친화력이 높고, 사회가 다원화되어 억제되었던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면서 공격성이 높을 수 있다는 김봉진 등(1991)의 연구를 지지한다. 한족의 경우 아직까지 서구 문화권의 영향을 조선족 보다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동양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질 특성인 활동통제와 주의(Ahadi 등, 1993)가 조선족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도 일관하다.

구체적으로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지지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탄력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는 서로 연관되었다.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면화 문제행동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선족과 한족 아동들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고, 간접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도 감소하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

동의 부적응이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높고 내면화 문제행동은 현상학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가족, 친구,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의 활용은 아동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함에 있어서 우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질적으로 우울, 불안이 한족 아동들보다 높고, 부모들의 외국 인력송출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문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지지를 구축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를 향상하고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서는 탄력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負(-)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지만,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으로 나누어 집단 간의 관계적 구조 분석에서는 탄력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조선족과 한족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할 비행과 공격성 점수의 분산과 표준편차가 적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체모형에서는 조선족과 한족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의 분산이 넓게 분포되었지만 민족별 집단 간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행과 공격성의 평균이 조선족은 1.60과 1.95이고, 한족은 1.31과 1.51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사이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학교, 집단, 정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문화적 배경, 교육과 철학의 차이로 인해 소속집단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고 내적통제성이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기주장과 표현보다는 집단규준에 맞추는 현실은 아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개인을 강조하는 서구나 한국의 아동보다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억압하기 때문에 외현화 문제행동을 쉽사리 들어낼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표본 크기의 변화가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집 수를 늘려 일반

학령기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을 포함한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탄력성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경로 중 어떤 경로에서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엄격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등가제약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경로에 등가제약을 한 모형의 χ^2 값이 비제약모형의 χ^2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에 대한 구조모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탄력성’의 경로와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에 비해 ‘사회적지지→탄력성’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경우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족은 조선족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 지지망 구축 등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를 더 많이 취한다(박용천 등, 1997)는 선행연구로부터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지지를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문제중심적 대처, 적극적인 대처방식과 문제해결능력은 탄력성의 증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지원을 구축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지지→내면화 문제행동’의 경로계수도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에 비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조선족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기질적으로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우울, 불안이 더 높은 현실에서 사회적지지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프로그램을 개입한다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물론,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방 및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은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사회적지지의 향상과 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 및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상담센터, 학교 현장에서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에 따른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본 연구는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는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해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크고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적인 모형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사회적지지의 향상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결손가정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지지를 높여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결손가정 아동에게 사랑의 손길을 주는 다양한 활동은 아동들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따스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형성된 외로움을 보완해줄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회적지지는 아동의 탄력성 증진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청

소년상담센터에서 방학 중에 진행하고 있는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기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실시하는 심리건강교육과 담임교사의 생활지도가 결부된다면 결손가정 아동들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면화 문제행동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연변지역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집단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 간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 간 비표준화 경로계수에서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이르는 경로계수가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사회적지지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계수는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이 한족 결손가정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지지의 향상과 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 및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는 사회문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기관, 학교, 지역사회에서 민족, 결손가정 유형과 원인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특히 기질적으로 조선족 아동이 한족 아동보다 우울, 불안,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을 생각할 때 조선족 부모들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과 같은 미시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즉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민족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지만, 본 연구의 표본은 연길시, 화룡시, 룡정시, 안도현의 5~6학년에 재학중인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표집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 탄력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환경 변인으로 사회적지지를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으나 이 변인들만으로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전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을 확장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인과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의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저학년과 고학년 및 유아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발달 중에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기 개입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현, 오경자(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강지훈, 박성연(2005). 남·녀 아동의 부적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35-53.
-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 강희경(2006).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대한가정학회지**, 44(11), 149-159.
- 고미영(1998).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6, 51-75.
- 고민숙(2002).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 애착 유형과 생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정(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1992). 공격 영화 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29-43.
- 곽금주, 문은영(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II):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 곽금주, 윤진, 문은영(1993). 한국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27.
- 구미향, 이양희(2003). 아동기 두려움과 행동문제의 특성. **초등교육연구**, 16(1), 341-363.
- 구본용(1992).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10월 9-10일 한양대

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5차 학술세미나.

- 권석만(2005).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연희, 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김수현, 이봉건(1992). 부모양육변인들과 교우관계 변인들이 초기의 숨은 비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15-524.
- 김경민, 정익중(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5, 93-120.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수(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대업(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학현사.
- 김대호, 김광일, 이해원, 박용천, 이동근(2005). 중국 한족과 조선족 초등학생의 신체 폭력 경험(1): 민족간의 유병율 차이. **신경정신의학**, 44(3), 357-363.
- 김도훈, 문유신(200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문제행동 연관성: 서울시내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2(2), 237-244.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2001). **외현화·내면화 문제행동 아동의 정서성 및 조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12). 연변지역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3(3), 1141-1157.
- 김명숙, 김성봉, 김도영, 허철수(2012).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비교교육연구**, 22(1), 99-119.

- 김명숙, 김성봉, 임원선(2010). 중국 농촌 조선족 저소득층 결손가정 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비교교육연구**, 20(5), 87-107.
- 김명숙, 김종호, 염순정(2011). 연길시 조선족 결손가정 보호자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심리사회와 매체상담학 연구**, 2, 1-15.
- 김명숙, 정혜원, 임원선(2011). 중국 조선족 농촌 결손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 323-338.
- 김문정, 정문자(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김미선(2006).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향(2006). **자아탄력성 증진훈련이 중학생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보경(1991). **아동기 행동장애**. 서울: 성원사.
- 김봉진, 김철구, 표미자, 최순(1991). 중국 연변지구 한족과 조선민족 아동행동문제 비교분석.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150-159.
- 김선진(2005). **또래지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방관적 태도 감소 및 사회적지지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성이(1992). 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보호방안.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
- 김소현(2000).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비행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2008).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지**, 25, 9-38.
- 김숙형(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호(2012).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승경(2004).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승경, 강문희(2005).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6(1), 261-278.
- 김아영, 이명희, 전해원, 이다솜, 임인혜(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유능감 및 관계성과 비행 간의 종단적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21(4), 945-967.
- 김안자(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 271-285.
- 김영모(1981). **소년비행·현대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은경(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6).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정(2007). **가족레질리언스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옥(2005).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호 등(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김지현(2010).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유능감과의 관**

- 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행섭(2002). **비행경향성을 보이는 초등학생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순(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2001).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기 문제 행동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81-95.
- 김형태(2011). 그룹홈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 그리고 심리·사회 적응의 종단효과. **청소년학연구**, 18(11), 137-164.
- 김형태, 조순실(2009).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6(3), 259-286.
- 김혜선(2004). **조손가족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진(2006).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영(2010). **모의 통제 및 아동의 부적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라춘봉(2004). **흑룡강성 조선족교육의 문제 및 해결대책: 노무와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조사와 사료**. 최성학 외 11인 (저), **21세기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향란(2006).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국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광훈(2006). **연변 조선족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대근, 문수백(2011). 아동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32(5), 49-65.
- 문수백(2003).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방법의 실제**. 서울: 학지사.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승태, 김민배(2005).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간의

- 구조방정식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2), 37-56.
- 민가경(2003).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미희, 이순형, 이옥경(2005).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3(11), 109-125.
- 민병근, 이길홍, 장동산(1985). 한국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성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10(4), 405-422.
- 민하영, 유안진(1996).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279-293.
- 박경옥(2006). **민족학교 결손가정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연구**. 연변교육출판사. 440-443.
- 박미정(1992). **국민학교 아동의 비행화 경향진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지, 유미숙(2011).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29-42.
- 박성연, 김미경, 도현심(2000).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문화접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 159-175.
- 박성옥, 신귀순, 박정옥(2003). 결손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2(4), 403-416.
- 박옥임(2006). **농촌 조손가족의 손자녀 연구: 3세대가족의 비교**.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옥희(2004). **중국 연변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민과 상담요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천, 김광일, 방금녀, 고복자, 김대호(1997). 고등학생 스트레스의 횡문화적 연구: 연변의 한족, 조선족 및 서울의 한국인 비교. **신경정신의학**, 36(2), 304-314.
- 박은희(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경(2010).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 및 정서조절 능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주, 이기학(2010).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2), 795-808.
- 박재연(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1), 345-375.
- 박정균(2008). **인력수출로 인한 가정구조의 변화가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사회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 류혜순(2004). **연변조선족사회 결손가정 현상과 자녀교육문제 연구**. 최성학 외 11인 (저), **21세기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정희, 박정미(2010).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25-134.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경(200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 박민정(2005a). **연변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및 한국 아동의 기질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3), 221-231.
- 박혜원, 박민정(2005b).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10), 141-152.
- 박혜원, 박민정(2006). **자아개념, 애착, 교사 및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선족 및 한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3), 79-89.
- 박혜원, 원영미, 이귀옥(2003).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의 읽기교과서 내용분석: 생태학적 체계에 따른 가치덕목의 비교**. **아동학회지**, 24, 55-69.
- 서명석(2009). **동양의 양육전통인 엄부자모(嚴父慈母)를 둘러싼 시선과 눈짓**. **교**

- 육사상연구, 23(1), 127-140.
- 서보엽(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정현, 송다영, 한정원(2003). 이혼가족 및 사별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11, 9-34.
- 세계일보(2005. 1. 1.). **잊혀진 한국인들**, 동포사회 실태. 못 이룬 꿈에 우는 한민족 이방인들.
- 손현규(2003).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미령(2006).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201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19.
- 송옥현(1977). 정신과 외래환자의 The Self-Rating Anxiety Scale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6(1), 84-94.
- 신정이, 황혜원(2006).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3(5), 123-154.
- 신효진, 노충래(2007).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문제행동 비교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12), 199-229.
- 심승원(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후섭(1989). **자기주장훈련이 아동의 우울성향, 주장행동, 귀인양식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동복지편람(1997).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양옥경, 최명민(2001). 한국인의 한과 탄력성: 정신보건사회 사업에의 적용.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7-29.

- 어경림(2001).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연구. **상담심리연구**, 3(1), 49-75.
-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2011).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 통계자료.
- 오경자(1991). 아동·청소년 문제행동의 분류 및 진단. **한국아동학회 추계워크샵 자료집**, 5-20.
- 오경자, 이해련(1991). 한국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 자료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33-55.
- 오경자, 홍강의, 이해련, 하은혜(2001). **K-YSR 청소년의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미경, 이수희(2010). 집단놀이치료 활동을 통한 한부모 가족 방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237-259.
- 오승환(2000). 소년소녀가장의 사회심리적 적응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16, 117-141.
-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영진(2010). **청소년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궤적 변화와 유형화 예측 변인**.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 한미현(1995). 아동 행동 평가 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유은애(2008).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통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갑정(2007). **중국 연변 조선족 유아의 가족생활 연구: 별거 및 동거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미(1997).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인식 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1, 393-422.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1(1), 51-59.

- 이경아(1997).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덕희(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3), 77-96.
- 이석형(2006).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2008).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정(2006). **아동의 분노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영(1998). **부친부재가 여아의 성역할 선호성에 미치는 경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 신현숙, 이동형(2011). **우울·불안의 예방과 개입**. 서울: 학지사.
- 이시라, 박혜원(2005a).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어머니와의 현대적 적응**. **중국학연구**, 33, 537-571.
- 이시라, 박혜원(2005b).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어머니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 및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39-57.
- 이시라, 박혜원(2005c).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어머니의 애착이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09-127.
- 이영주(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2), 83-105.
- 이예승(2004).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정(2001).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학회지**, 23(1), 1-16.
- 이용준, 박경자(2005).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 **아동학회지**, 26(1), 329-345.

- 이원영, 이태영, 강정원(2008). **영유아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북카페.
- 이인희(2010). 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조직 변인의 구조적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28(2), 81-102.
- 이지연(2000). **한국 아동인성검사(KPI-C)의 자아탄력성 척도(ERS) 타당도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2009).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메타인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몰입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혜, 이인희(2010). 교사의 업무부담, 직무만족, 조직몰입, 교사 전문성과 학교 교육 성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1), 25-52.
- 이진아(2007). **한부모가정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리(2007).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유연성의 역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리, 조한익(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353-371.
- 이현주(2011). **결손가정 아동의 정신건강 구조모형**.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연(2004).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인섭(2012). **중학생의 부모양육행동 지각, 정서능력, 외현화 문제행동의 성차 및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향(2003).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행동과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정체성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심(2003).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정(200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진(2007). **중학생의 성별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자기에 및 지배성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신희천(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장창현(200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재일, 조운희(1990). **집단경험의 빈곤·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8, 3-24.
- 정명숙, 손영숙, 정현희(2004). **아동기 행동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문자, 전연진(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및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과 이들 간의 인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9), 161-175.
-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33-150.
- 정미현(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성인(1998). **아동의 사회적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옥(201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부모양육 행동과 부적응 도식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315-333.
- 정지영, 임정하 (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1), 37-51.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한국아동학회지**, 13, 59-75.
- 정혜미(2008).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확실, 조연순, 이성은(1992). **중국 조선족과 한국의 초등교과서 비교분석연구: 조선어, 사회, 수학, 자연, 교과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6, 5-44.

- 제명숙(1985). **결손가정이 아동의 성격차원에 미치는 환경**.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박혜원, 이사라, 이주연, 박민정 공저(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사회성·정서 발달과 사회적 영향요인**. 서림출판사.
- 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주연(2005). 중국 조선족 가정의 문화접변 실태: 연변 지역과 심양/할빈지역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8), 37-54.
- 조복희, 이주연(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 조복희, 이주연(2006).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 및 학교적응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27(1), 95-111.
- 조복희, 이진숙, 한세영(2005). 연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적통제성,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3), 91-104.
- 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장규, 김선옥, 류인균, 조맹제(2001). 한국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27-639.
- 조홍식 외(1999).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주소희(2002). 이혼가정자녀의 적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9, 76-106.
- 주소희, 이양희(2007). 아동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학교 4-6학년용. **아동학회지**, 28(2), 91-113.
- 주소희, 이양희(2011).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18(4), 103-139.
- 차윤희, 김영희(2010). 아동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8(5), 25-48.
- 천희영, 옥경희, 황혜정(2008). 한국과 연변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양육요인 및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57-70.
- 천희영, 정계숙, 옥경희, 황혜정, 최성학(2006). 부모별거 초등학생의 별거 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른 사회·정서적 적응력 연구: 연변 조선족 아동과 한

- 국 아동의 비교. **아동학회지** 27(2), 101-126.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비행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최영(2007). 위탁아동이 인지한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 위탁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4, 61-90.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불안의 측정: 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2.
- 한경리(2009). **농촌조손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 통계청(2010). 한부모 가구 비율. Web site <http://www.index.go.kr>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원선(1978). 한국청소년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오늘의 청소년**, 2, 123-153.
- 한준아, 김지현(2011).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이 남아와 여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3), 11-21.
- 허남순(2004).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243-270.
- 허남순(2008).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의 문제행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8), 207-233.
- 허선윤(2010).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내면화 장애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민, 박혜영 (2005). 시설보호 아동,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61-177.
- 호주동아일보(2006. 10. 28). 행동장애 유치원생 평생 정신질환 전조. http://www.hojudonga.com/document_srl=1에서 2009년 4월 5일 인출.
- 홍경자(1986). **초등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복희(2001).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도, 이주영, 김지혜(2003). 청소년기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및 인지 특성. **신경정신의학**, 42(3), 381-386.
- 陳惠惠, 劉巧蘭, 胡冰霜(2011). 農村留守初中生社會支持,同伴關係與心理彈性的關係研究[J]. **現代預防醫學**, 38(16), 3219-3224.
- 段成榮, 周福林(2005). 我國留守兒童狀況研究[J]. **人口研究**, 1, 29-36.
- 胡湘明(2009). 農村留守兒童心理健康的學校干預機制研究[J]. **山西青年管理幹部學院學報**. 22(4), 16-19.
- 金明淑(2004). **朝鮮族中小學單親無親家庭學生教育初探**[D]. 延邊大學碩士論文.
- 李東斌, 溫義媛(2009). 農村留守兒童心理健康狀況的調查與分析[J]. **教育測量與評價**, 4, 32-35.
- 李海壘, 張文新, 張金寶(2008). 青少年心理韌性量表 (HKRA) 修訂[J]. **心理與行爲研究**, 6(2), 98-102.
- 李永鑫, 駱鵬程, 譚亞梅(2008). 農村留守兒童心理彈性研究[J].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48(1), 13-18.
- 李永鑫, 駱鵬程, 聶光輝(2009). 人格特徵,社會支援對留守兒童心理彈性的影響[J].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49(6), 127-130.
- 李志凱(2009). 留守兒童心理彈性與社會支援的關係研究[J]. **中國健康心理學雜誌**, 17(4), 440-442.
- 廖豔華(2007). 近十年來我國兒童問題行爲研究現狀[J]. **浙江教育學院學報**, 11(6), 33-38.
- 繆勝龍(2012). 國內關於心理彈性研究取向的綜述[J]. **社會心理科學**, 27(134), 23-28.
- 朴今海, 鄭小新(2009). 延邊地區朝鮮族留守兒童的教育與監護問題[J].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42(1), 103-108.
- 朴婷姬(2006). 所有孩子健康成長:朝鮮族單親兒童和留守兒童心理問題及對策分析[J]. **中國民族教育**, 9, 20-22.
- 邱婷, 譚文(2012). 心理彈性的文獻綜述[J]. **社會心理科學:理論研究**, 27(133), 9-33.
- 王東宇, 王麗芬(2005). 影響中學留守孩子心理健康的家庭因素[J]. **心理科學**. 28(2), 477-479.
- 王敬峰(2010). 農村留守兒童心理與教育問題及對策研究[J]. **繼續教育研究**, 4, 71-73.
- 王淑芳(2010). **農村留守兒童的心理彈性及其與依戀應對方式的關係**[D].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 席居哲, 桑標, 左志宏(2011). 心理彈性兒童的認知關係認知[J]. **心理發展與教育**,

6, 607-618.

- 肖水源(1999).社會支持評定量表[J],汪向東,王希林,馬弘,編著.心理衛生評定量表手冊.中國心理衛生雜誌.
- 辛自強,池麗萍,耿柳娜(2007).青少年社會支持評價量表的修訂與應用[J].**中國心理衛生雜誌**, 21(6), 379-382.
- 楊阿麗,趙洪朋(2011).生活事件,社會支持與流動兒童問題行爲的關係[J].**心理研究**, 4(6), 67-71.
- 楊會芹,張波,郭雪萍,李瑗,石聰欣(2009).農村留守兒童心理健康狀況及其影響因素分析[J].**石家莊學院報**, 11(6), 97-101.
- 姚小燕(2012).心理彈性理論視閥下農村留守兒童問題研究[J].**貴陽學院學報(社會科學版)(雙月刊)**, 27(3), 38-41.
- 一張(1994).留守兒童[J].**瞭望**, 45, 87-87.
- 張守武(2010).單親兒童心理問題的成因及教育策略[J].**時代教育**, 10, 54-54.
- 周偉東,陸福山(2008).生活事件社會支援,父母養育方式及防禦方式在抑郁症發病中的作用[J].**當代醫學**, 8(147), 21-23.
- 周岩岩(2008).**家庭結構,父母教養方式對朝鮮族初中生心理健康的影響**[D].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 朱俊卿(2009).農村留守兒童心理健康問題研究的新趨向,**教育導刊(下半月)**, 4, 37-40.
- 中國寧波網(2011).全國留守兒童近5800萬人多集中在中西部人口大省. www.cnnb.com.cn, 12月24日.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00).第五次全國人口普查主要數據公報. <http://wenku.baidu.com/view/ffe472ce0508763231121256.html>, 3月28日.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Mc-Conaughy, S. H. (1997).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Practical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Applications.
- Ahadi, S. A., Rothbart, M. K., & Ye, R. (1993). Children's temperament in the US and Chin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 359-377.
- Amato, P. R. (1987). Family Processes in intact, one-parent, and step-parent

- family: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27-337.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Amato, P. R. (1999). Children of divorced parents as young adults. In (Ed.) Hetherington, E. M.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pp. 147-161). University of Virginia.
- Amato, P. R.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 (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355-370.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3-58.
- Angenent, H. & Anton, de Man. (1996). *Background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Peter Lang.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York: Prentice-Hall.
- Bandura, A. (1978). Learning and behavioral theories of aggression, In I. L. Kutash, S. B. Kutash., & L. B. Schlesinger (Eds.), *Violence*(pp. 29-57).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Bifulco, A., Harris, T., & Brown, G. (1992). Mourning or early inadequate care? Reexamining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loss in childhood with adult depression and anxie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433-449.
-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urnette, D. (1998). Grandmother caregivers in inner-city Latino families: A descriptive profile and informal social supports.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5, 121-137.
- Cabrera, N. J.,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 127-136.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
- Carlson, G. A. (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 J. Psychiatry*, 137, 445-449.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5, 300-317.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Cohen, S., Syme, S. L.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3-22). Orlando, FL: Academic Press.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Will,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47.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influences on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J. J., & Peterson, A. C. (1984). *Adolescent and yout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643-692.
- Cowen, E. L. (1990). The rochester child resilience project: Overview and summary of first year finding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193-211.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ec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162-170.
- Dodge, K. A., & Crick, N. R. (1990).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bases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1), 8-22.
- Dollard, J., Doob, L. W., Miller, N. E.,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dwards, J. N. (1987). Changing family structure and youthful well-being: Assessing the future. *Journal of Family Issues, 8*, 355-372.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Ell, K. (1984).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Social Service Review, 3*, 33-149.
- Galen, B. R., & Underwood, M. K. (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 Garn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s Supplement 4*(pp. 213-233). Oxford: Pergamon.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Hammen, C.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Henderson, S. H., Hetherington, E. M., Mekos, D., & Reiss, D. (1996). Stress parenting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in nondivorced and stepfamilies: A within-family perspective. In Hetherington, E. M, & Blechman (Eds.) *Stress, coping and resiliency in children and families* (pp. 39-60). Lawrence Erlbaum.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etherington, E. M., & Stanley-Hagen, P. (1999). Divorce and the adjustment of children: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9-140*.
- Hobfoll, S. E. (1985). Personal and stress resources and the ecology of stress resistance. In P. Shav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pp. 265-290). Beverly Hills, CA: Sage.
- Hoffman, M. L. (1960). Power assertion by the parent and its impact on the child. *Child Development, 31*, 129-143.
- Jacobson, D. E. (1986). Types and Timing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250-264.
- Kauffman, J. M. (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5th ed.). N. Y: Macmillan.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aul B. Baktes & Orville G. Brim, J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pp. 253-286). New York: Academic Press.
- Keenan, K., & Shaw, D. (1997). Developmental and social influences on young

- girls' early problem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1*, 95-131.
- Kessler, J. W. (1988). *Psychopathology of childho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Kessler, R. C., McGonagle, KA, Zhao, S., Nelson, C. B., Highes, M, Shelman, S., Wilchen, H., & Kendler, K.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Kirby, L. D.,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Fraser, M. W. (Ed.), *Risk and Resiliency* (pp. 10-33). Washington, DC: NASW Press.
- Kiston, G. C., & Morgan, L. A. (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13-924.
-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ovacs, M., Paulauskas, S., Gatsonis, C., & Richards. C. (1988).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205-217.
- Lai, A, C., Zhang, Z., & Wang, W. (200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in Hong Kong and Beijing Chinese families: A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1), 60-66.
- Lamb, M. (1977). Father-infa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 167-181.
- Lorenz, K. Z. (1966). *On aggression*. New York: Harcourt Brace Javanovich.
- Mc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offitt, T.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Offord, D. R., Boyle, M. H., Szatmari, P., Rae Grant, J. I., Links, P. S., Cadman, D. T., Byles, J. A., Crawford, J. W., Blum, H. M., Byrne, C., Thomas, H., & Woodward, C. A. (1987). Ontario child health study: II. Six month prevalence of disorder and rates of service utiliz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832-836.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6-307.
- Phares, V. (1992). Where's Poppa: The relative lack of attention to the role of fathers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7*, 656-664.
- Pinneue S. R. (1986).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Nashville, TN: Counselor Recordings & Test.
- Pra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Mussen, P. H., & Hetherington, E. M.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547-641).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Q'Connell-Higgins, R. (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Bost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Richman, N., Stevenson, J., & Graham, P. (1985). Sex differences in outcome of pre-school behavior problems. In A. R. Nicol (Ed.), *Longitudinal*

- studies in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pp. 75-89). New York: Wiley.
- Rie, H. E. (1971). *Historical perspectives of concepts of child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in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Aldine-Atherton.
- Rose, A. J., Lockerd, E. M., & Swenson, L. P. (2001). Overt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sociometrically and perceived popular children and adolescents. Minneapolis, MN: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 598-611.
- Rutter, M. (1990).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181-2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eelk-Cone, K. H., & Zimmerman, M. A. (2003). A longitudinal analysis of stress in African-American youth: Predictors and outcomes of stress trajector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6), 419-430.
- Simons, R. L., & Chao, W. (1996). Conduct problems. In Simons & Associates, *Understanding Difference Betwee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pp. 25-144). Thousands Oaks, CA: SAGE.
- Short, J. F. (1968). *Gang delinquency and delinquent subcultures*. New York: Harper & Row.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ter (Eds.) *Anxiety and the anxiety-disorders* (pp. 681-706). Hillsdale, NJ: Erlbaum.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Turner, R. A., Irwin, C. E. Jr., & Millstein, S. G. (1991).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experimenting with substance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93-105.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양옥경 · 김미옥 · 최명민 공역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서울: 나남.
- Weisz, J. R., Weiss, B. Wasserman. A. A., & Rintoul, B. (1987). Control-related beliefs and depression among clinic al-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49-158.
- Werner, E. E. (1994). Overcoming the odds. *Development and Behavioral Pediatrics, 15*(2), 131-136.
- Werner, E. E., & Smith, R. S. (199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Hill.

ABSTRACT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Resilienc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the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in Yanbian Area**

Ming-Shu Ji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In-Hoi Lee

China has been going through the construction of unique socialist modernization economically, although China stands for socialist country. In this regards, ethnic Korean society of Yanbian area in China has been undergoing consequential change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ocial structure, family structure, and socio-economic status of women. Especially, for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the parents' overseas departure or to the nearby metropolis of employment, rises in the divorce rate, and the absence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in home, the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show changes in values, identity confusion, psychological stability, deficiency of desire and affection, helplessness, interpersonal maladjustment, behavioral problems such as flight, aggression, and crime. Therefore, the principal point is to develop and utilize inherent strengths and resources of children,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variables that can induce successful adaption in the situations of behavioral problems or conflict situations.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chenbach (1991), behaviors assorted into two classifications. Under-controlled behaviors such as flight and aggression are classified for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behavior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excessive control are for internalizing behaviors. After setting up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resilienc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based on the research review,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1. What i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of social support, resilienc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in Yanbian area?

2. Are there any structural differences of the social support, resilienc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between Ethnic Korean and Chinese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se research questions Total of 484 (Korean for 265 people, Han for 219 people)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were selected. They were from 5-6 grade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he region of Yanji City, Longjing City, Antu County in Yanbian.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relevant variables, t-test were verified by using SPSS18.0 progra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verified by using Amos 20.0 program,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verified through multi-group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results and discussion. First, social supports of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in Yanbian had a direct impact on the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also had a direct impact on th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resilience had a direct impact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had a direct impact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lso, social support indirectly affecte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rough resilience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t was proven that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mediated by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fluencing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as larger and more effective than the effect mediated by resilience. These results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parent-centric, teacher-centric, friend-centric education in order to get more social support. when the education administrative offices, counseling centers, local communities, schools, and families make early intervention and counseling for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As the children in deficient families especially hard to receive family support, it is so important to form the school's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increase the support of teachers and friends, culture of sharing and caring to formation emotional support and informational support. Considering overall models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 efforts to improv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the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in the Yanbian are the effective strategie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such as social support, resilience,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between ethnic Koreans and Chinese children groups from deficient families. Furthermore, the results of specific path coefficients of ethnic Korean and Chinese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confirmed that Chinese childre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ethnic Koreans in social support path coefficient influencing resilience, and ethnic Korean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hinese children in social support path coefficient related to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inese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received more social support than ethnic Korean children followed by resilience improvement and fewer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refore, more efforts are needed for ethnic Korean children from deficient families including improvement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reduction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中文摘要

延邊地區留守兒童的社會性支持、心理彈性、內顯問題行為和外顯問題行為間的結構關係分析

金明淑

濟州大學校 大學院 教育學科

指導教授 李仁會

中國隨着經濟改革和對外開放，迎來了中國特色社會主義現代化轉型期，社會也發生了工業化和城市化引起的個人價值觀、家庭結構、人際關係和生活方式的變化。特別是受父母海外離境、到鄰近大都市的就業、離婚率上升、留守兒童教育匱乏等因素的影響，引發了延邊地區留守兒童價值觀的變化、人生觀的混亂、心理安全感和情感需求的缺乏、人際關係和學校生活的適應不良，焦慮和憂慮、非行和攻擊性等諸多問題。為幫助留守兒童充分发挥自身內涵的優勢和環境資源，克服在學習和生活中的困境和衝突，讓孩子們身心健康快樂地成長，特界定了相關變量之間的結構關係。本研究根據阿亨巴赫(1991)的理論，把非行和攻擊性為外顯問題行為，把抑郁和焦慮為內顯問題行為，根據先行研究設置了社會性支持、心理彈性、內顯問題行為和外顯問題行為等變量間的關係，通過結構方程模型分析，界定了諸多變量之間的因果關係。

本研究提出了以下問題。

1、延邊地區留守兒童的社會性支持、心理彈性、內顯問題行為和外顯問題行為間的結構關係是如何？

2、延邊地區朝鮮族和漢族留守兒童的社會性支持、心理彈性、內顯問題行為和外顯問題行為組間的結構關係是否有差異？

為此，選取了延邊地區的延吉市、龍井市、和龍市、安圖縣小學5-6年級留守兒童484名(朝鮮族265人，漢族219人)為被試。運用spss 18.0統計軟件進行了相關變量的記述統計和差異性檢驗，使用Amos 20.0統計軟件進行了結構方程模型分析，組間比較差異性檢驗。

结果表明：

首先，延边地区留守儿童的社会性支持直接影响心理弹性；社会性支持直接影响内显问题行为。心理弹性直接影响外显问题行为，内显问题行为直接影响外显问题行为。而且，社会性支持通过心理弹性和内显问题行为对外显问题行为起到间接的影响。间接的影响力‘社会性支持-心理弹性-外显问题行为’路径比‘社会性支持-内显问题行为-外显问题行为’路径小。根据以上结果，教育行政机关、心理咨询中心、社区、学校、家庭开展留守儿童的早期干预和教育时，先行家长、教师、同学为中心的教育，形成分享、关怀、共同进步的育人环境，增强对留守儿童社会支持力度，让儿童从中得到人文关怀和心理支持。对缺少家庭温馨的留守儿童，应该搭建教师和同学们的情感沟通桥梁。为改善延边地区留守儿童的外显问题行为，考虑社会性支持、心理弹性、内显问题行为和外显问题行为的结构方程模型时，首先要采取增进社会性支持的各种努力和人文环境的改善，那么，儿童的心理弹性自然会增强，随之缓解外显问题行为。

其次，朝鲜族留守儿童组和汉族留守儿童组间的社会性支持、心理弹性、内显问题行为和外显问题行为结构关系上呈显著差异。两组间的路径系数是汉族留守儿童组比朝鲜族留守儿童组在‘社会性支持-心理弹性’上呈显著高，而在‘社会性支持-内显问题行为’上呈显著低。以上结果显示汉族留守儿童比朝鲜族留守儿童在感知家庭、教师、同学们的支持更多，比朝鲜族留守儿童在增强心理弹性和缓解内显问题行为上显著差异。总之，朝鲜族留守儿童比汉族留守儿童更需要增进家庭、教师和同学诸方面的社会性支持的人文环境，增强心理弹性的训练，减少内显问题行为的努力。

부록 1

조선족 결손가정 아동의 일상생활 특징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평소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좀 더 신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선택하여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명숙

※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하시거나, 직접 적어주세요.

1. 성별은? ① 남 () ② 여 ()

2. 학년은? ① 4학년 () ② 5학년() ③ 6학년()

3. 지금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적으세요.

(_____)

4. 친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망 () ② 이혼 () ③ 별거 ()

④ 외국으로 돈 벌이 나감() ⑤ 국내 다른 곳에 돈벌이 나감()

I 다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비슷한 칸에 V표를 해주세요.

번호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 해주는 것 같다.					
9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10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11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13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14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5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7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18	우리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1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20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21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2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23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2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II

아래의 문항들은 탄력성에 관한 것으로 평소 나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2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5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한다.					
6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찬찬히 생각해 본다.					
7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다.					
8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9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면 나도 아픔을 느낀다.					
10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려고 한다.					
1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낙담하지 않는다.					
1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참을 수 있다.					
1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1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5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16	나는 내 꿈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17	어려움이 많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18	새운 목표나 계획들을 실천하는 편이다.					

III

다음은 여러분의 거주가족에 변화가 있다면 그 이후의 생활에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비슷한 것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2	나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싸우는 경향이 생겼다.					
3	나는 항상 슬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	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게 되었다.					
5	나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6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까봐 겁이 났다.					
7	나는 항상 아픈 곳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다.					
8	나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9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지 않는다 생각하게 되었다.					
10	나는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다.					
11	나는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2	나는 남보다 못났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13	나는 항상 나쁜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4	나는 내 자신이 미웠다.					
15	나는 잘못된 일은 거의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6	나는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7	나는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8	내가 커서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19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었다.					
20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것 같이 느끼게 되었다.					
21	나는 식욕이 없고 입맛이 없어졌다.					

IV

다음은 여러분의 거주가족에 변화가 있다면 그 이후의 생활에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비슷한 것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2	나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경향이 생겼다.					
3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게 되었다.					
4	나는 자주 가출을 하게 되었다.					
5	나는 부모님 돈을 몰래 훔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6	나는 가끔 무단결석을 하게 되었다.					
7	나는 주위 사람들을 헐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8	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남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9	나는 사람(친구)을 잘 때리거나 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10	나는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경향이 생겼다.					
11	나는 조그만 일에도 시비를 걸고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12	나는 선생님 말씀에 대들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					
13	나는 나쁜 말과 욕을 자주하게 되었다.					
14	나는 나쁜 일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15	나는 남을 잘 놀리게 되었다.					
16	나는 가끔 담배나 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17	나는 갖고 싶으나 돈이 없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가끔 하게 되었다.					

-----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关于汉族留守儿童日常生活特征问卷

您好！

感谢您参与问卷调查.

本次问卷调查是为了了解同学们在家里和学校生活中的个人情况, 以帮助同学们能有一个更加丰富多彩的生活.

所有问题无对错之分, 您真实的回答对于我们非常重要, 我们将对您个人资料和观点予以保密.

2012年 1月

济州大学校 大学院 教育学科

金明淑

※ 以下是写您及家人的基本情况.

(请用V 号选择符合您情况的一项, 或者直接填写.)

1. 您的性别: ① 男 () ② 女 ()

2. 年 级 ① 五年级() ② 六年级()

3. 请填写现在和您住在一起的家人.

(_____)

4. 如果与父母一方或双方不住在一起的话, 其理由是?

① 死亡 () ② 离婚 () ③ 分居 ()

④ 出国挣钱 () ⑤ 去国内外地挣钱 ()

I

请阅读下面社会支持的选项, 选择符合您情况的一项后打V.

序号	问 题	完全 不 符合	比较 不 符合	说 不 清	比较 符合	完全 符合
1	朋友们似乎喜欢我.					
2	朋友们似乎疏远我.					
3	朋友们似乎听从我的想法或话语.					
4	当我遇到困难的时候,朋友们安慰我,鼓励我.					
5	我和朋友们互相帮助, 似乎相处得很好.					
6	朋友们对我似乎很关心.					
7	朋友们似乎喜欢和我在一起.					
8	朋友们似乎很理解我.					
9	家人似乎不太喜欢我.					
10	家人之间有许多互相帮助.					
11	我家人很理解我.					
12	我家无论有什么, 似乎都能一起分享.					
13	我困难的时候, 家人给我力量和勇气.					
14	家人似乎听从我的想法和我说的话.					
15	家人似乎很在乎我.					
16	家人似乎非常关心我.					
17	我和老师似乎很亲近.					
18	我觉得老师热心的帮助我.					
19	我和老师说话似乎很难.					
20	我觉得老师并不太在乎我的心情.					
21	我觉得老师似乎喜欢我.					
22	我觉得老师似乎很关心我.					
23	当我生病或者有事请的时候,老师好担忧.					
24	老师重视我.					

II

请阅读下面心理弹性的选项，选择符合您情况的一项后打V。

序号	问 题	完全 不 符合	比较 不 符合	说 不 清	比较 符合	完全 符合
1	我只要通过努力就可以做好许多事情.					
2	我有能力克服困难.					
3	如果发生事情就想到各种解决办法.					
4	我能做好很多事情.					
5	我会区别能解决的事情和不能解决的事情.					
6	出了问题，首先思考出事的原因.					
7	在学习和工作当中，我可以集中精力而不受到情感的干扰..					
8	仔细听他人讲自己的经历.					
9	如果别人伤心，我也会跟着伤心.					
10	设法了解他人的想法和感受.					
11	即使伤心或者疲惫的时候，也不会灰心.					
12	即使情绪低落的时候，我也能控制自己的情绪.					
13	即使失败了，也不会过分失望.					
14	事情的发生，不像我希望的那样.					
15	即使失败了，我也会鼓起勇气，重新开始.					
16	为了实现我的理想而努力.					
17	虽然很难，但是我相信理想总会实现.					
18	我努力实现 制定的目标和计划.					

III

请阅读下面的选项，选择符合您情况的一项后打V。
(家庭成员发生变化以后，您的感受和想法。)

序号	问 题	完全 不 符合	比较 不 符合	说 不 清	比较 符合	完全 符合
1	我变得不再期待幸运的事情会发生在我身上.					
2	我变得不再回避与人的冲突，按自己的个性去与人争吵或打架.					
3	我变得经常伤心.					
4	我经常失眠，还做噩梦.					
5	我变得会说谎了.					
6	我担心今后会发生什么事情.					
7	我常常因为疼痛担心的事情多了起来.					
8	最近我感到很寂寞.					
9	我觉得谁也不肯为我着想.					
10	不管做什么事情我都感觉到很困难、很累.					
11	我觉得自己是一个什么事情都做不好的人.					
12	我不如别人的想法多了起来.					
13	我经常觉得自己是个坏孩子.					
14	我讨厌自己.					
15	我最近总觉得，所有的事情几乎都是我的错.					
16	我偶尔有寻死的感觉.					
17	我最近觉得自己真的连一个好朋友都没有.					
18	我最近担心长大以后是否会成才.					
19	我最近变得不听父母的话.					
20	我最近感觉到别人对我都不太友好.					
21	我最近没有食欲.					

IV

请阅读下面的选项，选择符合您情况的一项后打V。
(家庭成员发生变化以后，您的感受和想法。)

序号	问 题	完全 不 符合	比较 不 符合	说 不 清	比较 符合	完全 符合
1	我最近变得抢钱或抢东西.					
2	我最近有经常妨碍别人的倾向.					
3	我变得一生气，就扔东西.					
4	我变得常常离家出走.					
5	我最近偷了父母的钱.					
6	我最近常常无故缺席.					
7	我最近威胁过周围的人.					
8	因为琐碎的事情，我和别人吵架的次数多了起来.					
9	最近我动手打人的次数多了起来.					
10	我变得很固执，还有叛逆的倾向.					
11	小事情我也与他人争执，使人难受.					
12	最近我变得顶撞老师，不服从老师的倾向.					
13	我变得经常说坏话，喜欢骂人.					
14	即使做了坏事，我也没有罪恶感.					
15	我变得经常戏弄人.					
16	偶尔也吸烟、喝酒.					
17	即使没钱买我想要的东西，有时也去商店里偷.					

----- 非常感谢您的合作！ -----

